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516.27 (-304.33)	749.64 (-42.20)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3.895 (+0.047)	1480.15 (+1.65)		

삼성디스플레이
애플도 고객으로
OLED 시장 휩쓸다
04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車·조선·철강업계 넘어 하청업체까지 “이익 공유” 한 목소리 성과급 뛴 빠진 산업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N% 성과급이 국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업계에서 불어온 N% 성과급 바람은 실적이 좋지 않거나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군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업체들도 N% 성과급을 통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고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매일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투자금 쌓아야 하는 기업이나
실적 좋지않은 기업까지 확산

“매년 노사갈등 있긴 했지만
산업전체 성과급 요구 이례적”

최대원 SK하이닉스 회장도
10%성과급 수정 가능성 내비쳐

한국GM 노조도 사측에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기아 노조, 르노코리아 노조 역시 사측에 대한 막대한 성과급 요구를 준비하고 나섰다. 반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 직원의 15%인 10만명을 감원하고 독일 공장 4곳의 추가 폐쇄를 예고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닛산은 2027년까지 글로벌 직원 2만명 감축을 선언하는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자동차 업체를 넘어 조선, 철강 등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상견례 이후 13차례 임단협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21일 14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는 등 단체행동권 확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화오션 노조 역시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체계를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산업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철강 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대비 150% 인상된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업체들도 N%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역이면서 N% 성과급을 통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포스코, SK에너지 등 대기업 발주처를 상대로 한 플랜트노조, 한화오션의 웰리브노조 등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간 협상 때마다 노사 갈등은 이어졌지만 올해처럼 산업 전체적으로 성과급 분배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건 이례적이다”며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고정비 증가로 기업의 투자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의 성과는 오랜기간 축적된 투자와 노력의 결실인데 이를 현재 구성원들이 독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성과는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성과급’ 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제도 설계 당시 예상보다 크게 뛰어넘으면서 구성원 보상과 주주가치의 균형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도 폐지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전국고속도로교통공단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흘간 교대조별로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점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조기 퇴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무적함대’ 스페인, 16년만에 월드컵 우승

스페인 선수들이 19일(현지 시간) 미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올라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스페인은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연장 끝에 1-0으로 꺾고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AP·뉴시스

삼성바이오, 2.7조 빅딜... ‘비만약’ 도전장

CDMO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초격차 생산능력 등 3대 성장축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기업을 전격 품에 안았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생산능력·폭넓은 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 확립 등 3대 성장 축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바르에 본사를 둔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 그룹’과 인수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2월 말까지 폴리펩타이드 지분 100%를 확보해 인수를 최종 완료한다.

폴리펩타이드 그룹은 1996년 글로벌 제약사 페링의 펩타이드 생산사업부에서 분사했고 1000건 이상의 펩타이드 치료제 개발 및 생산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펩타이드 치료제에 특화된 경쟁력은 물론 1500여 명에 달하는 숙련된 전문 인력까지 갖췄다. 또 현재 스웨덴·벨기에·프랑스 등 유럽, 미국, 인도 등 5개 지역에서 6개 생산 거점과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게 됐다. 실제로 폴리펩타이드 그룹의 기존 수주 물량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계해 인수 직후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게 된다.

현재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은 글루카

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등 만성질환 치료부터 항암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발맞춰 폴리펩타이드 그룹의 기술력을 내재화해 커지는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항체 의약품 중심의 생산 역량을 쌓아왔고 항체·약물접합체(ADC),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오가노이드 등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부문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지난해 초부터 ADC 전용 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고 오는 2027년까지 ADC 완제의약품 총선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코스피 6500 추락 ‘블랙 먼데이’

삼성·하이닉스 4%대 하락세
사이드카 발동... 올해 38번째

코스피가 6510선까지 밀려나며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피크아웃(고점 통과) 논란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에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4.33포인트(4.46%) 하락한 6516.27에 마감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총 38회(매도 20회, 매수 18회)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

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5.33% 급락하며 749.64에 마감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했음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고점 통과 우려가 무겁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중동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도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삼성전자는 이날 4.31% 하락한 24만 40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4.23% 하락한 176만 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피크아웃(고점 통과) 우려에 따른 차익 실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부

터 시작하는 인공지능 업체들의 실적 시즌은 AI 수요의 지속성과 반도체주의 디레버리징 및 데레이팅 국면 탈출 여부를 동시에 점검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알파벳의 경우 2026~2027년 설비투자(CAPEX) 가이던스 변화, 클라우드 중심 본업 수익성 개선 여부가 주목되며, 24일 인텔 실적발표에선 서버 중앙처리장치(CPU)출하량 회복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AI 관련 종목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는 글로벌 투자심리를 가늠하는 핵심 선행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 따르면 코스피와 나스닥 100지수의 60일 상관계수는 0.46으로 최근 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 최근 5년 평균인 0.16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예비경선 D-1 친명·친청 신경전 고조... “친청계가 청년최고 무산” “가짜 뉴스”

▲송영길 “정청래,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에서 지도도 가장 높아” <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최영중·최은식 의원 제명... 운영위, 찬성률 100% 의결

▲주진우,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선관위 수의계약 제한 등 담겨

▲이준석 “李 정부 부동산·주식시장 실패... 김용범 거취 표명해야”

▲외교부 국립외교원, 9개월간 해킹 당해... “시스템 긴급 차단”

정부, 'K-AI 패키지' 띄운다… 국내기업·기술 해외진출 확대

대외경제장관회의

‘K-AI 패키지 추진전략’ 발표
교통 등 7개 분야 사업메뉴 마련
대미통상현안에는 국익관점 대응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및 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설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모델이다.

이 패키지는 인프라에 특화한 AI 설루션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및 전력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구조다. 수자원과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메뉴를 마련했다.

국내 AI 산업의 해외 진출과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리 AI 기술과 부품을 최대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개발 협력 수단과 연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K-AI 패키지 사업 메뉴를 지속 확충, 업데이트하면서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하고, 국내에 설립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이들 개도국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유무상 연계로 수원국의 법·제도·표준 설계에 적극 참여하고 인력양성·기술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해 AI 기술·설루션을 확산하고 개도국 교육훈련

과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수원국 사업 수요를 발굴한 뒤, 올해 하반기 중 사업 메뉴를 수원국에 제안해 구체적인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K-AI 패키지와 함께 대미통상현안, 그린경제협정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이 추진 중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등 관세 조치 및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로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미측의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본적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부상하는 상황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그린경제협정(GEPA) 등 신 통상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결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방글라데시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서남아 핵심시장이자 서남아시아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與,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목소리

금융위·금감원 등 비공개 업무보고
금리상승 대출 피해 최소화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강력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금융위와의 당정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지난주 목요일(16일) (당국 이) 발표한 내용(보완책)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때는 정부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다음날인 지난 16일 경제·금융당



유동수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부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공개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국 수장들이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었으며, 금융위는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20주 단위로 거래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반기에 정부위가 원활하게 개최되지 못해 여러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 생산적 금융으로 가기 위한 여러 입법과제 추진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은행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더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금

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들 법안이 발의돼 있고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이 내년엔 시행되면 효과에 대한 시장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입법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자는 총론적인 말씀이 있었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당 정부위원들은 금감원과의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과의 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여러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도 금융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 데에서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한편 정부위는 소위를 정기적으로 열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는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법대로 정부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위와 당정 간담회에는 이덕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지난 13일(현지 시간) 이란 만다라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 뒤편으로 폭발로 인한 거대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란, 무력충돌 긴장감 고조

유가 불안정 등 세계 경제 ‘먹구름’

양측 연일 군사작전… 휴전 유명무실
유가 급등·물류 차질 등 우려 확산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우선 진정되어 가던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했다. 또 공급망 불안과 물가자극 등의 경기 하방요인도 연쇄적으로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주 미군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기습 공격을 수차례 주고받았다. 미군 병사가 전사한 데 따른 보복 공습과 혁명수비대의 주변국 미군기지에 대한 재보복 등 군사작전이 잇따라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유명무실화됐다.

이 같은 확전 양상은 유가에 즉각 반영됐다. 20일 북해산브렌트유 선물(9월 인도분)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달 하순과 이달 상순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바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80달러대에 진입했다. 브렌트유와 WTI는 한국시간 오후 3시20분 기준 각각 배럴당 90.94달러, 84.04달러에 거래됐다.

각국 유조선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된다. 원유 공급망 차질이

빛어지면 각종 원자재·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는다.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구조다.

호르무즈에 대해 홍해를 거치는 수송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최근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추가 공격에 대비해 후티 측에 홍해 관문 봉쇄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하루 700만 배럴가량의 원유 및 석유제품이 통과하는 세계 핵심 해상 운송로다.

영국 캐피탈이코노믹스는 두 해협이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차질을 빚거나 사우디 송유관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예멘 후티는 지난 13일 사우디 공항에 폭격을 가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사우디가 후티와 맺은 휴전 협정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19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는 최근 9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군사 지휘센터를 비롯해 방공 및 해안 감시 기지, 해상 전력, 미사일·드론 발사 기지, 통신망 등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존 림 대표 “글로벌 CDMO시장 입지 강화”

》1면 ‘삼성바이오 2.7조…’서 계속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약물 탐색 서비스 ‘삼성 오가노이드’를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인천 송도에 7조원을 투입하는 제3바이오캠퍼스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첨단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모달리티(치료 접근법) 확장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초격차 생산 역량도 강화한다. 제1캠퍼스의 1~4공장을 풀가동하는 데 이어 제2캠퍼스의 5공장도 램프 업을 단계적으로 이뤄냈다. 1~5공장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역량은 78만4000리터(L)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오는 2032년까지 제2캠퍼스 6~8공장이 완공되면 총 132만4000리터로 늘어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4월 미국에서는 글로벌 지리적 영토를 늘렸다. 첫 해외 생산 거점인 미국 메릴랜드 록빌 공장은 6만리터(L) 규모의 원료의약품 생산공장이다.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한체 의약품 생산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폴리펩타이드 그룹 양사의 독보적인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CDMO 시장에서 K바이오 기업 입지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se236@

여수·대산 석화 250만t 감축 가시화… 울산은 ‘샤힌’ 갈등

여천NCC 공장 폐쇄안 승인 압박
대산 통합법인 공정위 심사 돌입
두 사업 완료 땐 정부 목표치 근접

LG화학·GS칼텍스 후속논의 지연
“정부, 명확한 구조조정 원칙 세워야”

정부와 업계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국내 석유화학 설비 감축이 여수·대산산단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두 지역은 정부 승인과 기업결합 심사 등 사업재판 실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울산산단은 기업 간 이해관계와 신규 설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공동 재편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이 제출한 여수산단 사업재판안이 이르면 이번 주 정부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안은 여천NCC 2·3공장을 폐쇄하고 1공장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통합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행되면 연간 약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여천NCC

140만t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감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최종안을 접수했다.

대산산단 사업재판안은 오는 9월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심의를 시작했으며 업계는 늦어도 8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 합병한 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가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방식이다. 에틸렌 생산능력은 약 110만t 줄어든다. 공정위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시장의 경쟁제한 여부와 시장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사업이 마무리되면 감축 규모는 정부와 업계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270만~370만t)의 최소치에 근접한다. 구조조정도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설비 통폐합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다만 여수산단 내 후속 재판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LG화학·GS칼텍스는 NCC 감축과 설비 운영 효율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투자 부담과 합작법인 지분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 규제도 지분 구조 설계의 걸림돌이다.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LG화학·합작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이 증손회사가 돼 원칙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재판 특례 등 별도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산단은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에쓰오일이 생산능력 조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감축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동 재편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약 9조원이 투입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다. 연간 180만t 규모의 신규 에틸렌 설비가 가동되면 여수·대산의 감축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는 에쓰오일도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에쓰오일은 최신 고효율 설비를 노후 NCC와 같은 기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병준 한국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과 학과 교수는 “최신 고효율 설비 중심의 재편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만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경쟁력이 약한 기업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명확한 감축 기준과 구조조정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metro

dhalehale@metroseoul.co.kr

40년 만에 ‘초엔저’… 원화값, 하이닉스발 달러 유입에 반등

엔·달러 26거래일 연속 160엔대
올 평균 158.4엔, 1986년 후 최고
미·일 금리차 우려에 엔화 약세 심화
日 개입 땐 원화값 추가 상승 가능

올해 상반기 원화와 함께 뚜렷한 약세를 기록했던 엔화값이 달러당 160엔을 넘기며 엔저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원화값은 하이닉스발(發) 달러로 숏통이 트인 반면, 엔화값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해서다.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가 강세 전환하면 원화값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투자정보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뉴욕 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달러당 162.39엔에 거래를 마치며 26일 거래일 연속으로 160엔을 넘겼다. 특히 올해 들어 엔·달러 환율 평균은 약 158.4엔에 육박했다. 이는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2024년의 151.5엔과 비교해 약 4.6% 높은 수준이며, ‘플라자합의’의 영향이 본격화 한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엔화값 최저)치다.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취급하고 있다.

/뉴시스

◆ 엔화, 올 들어 약세 ‘뚜렷’

지난 1985년 9월 말 체결된 ‘플라자합의’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달러값을 하락시키고 다른 통화값을 올리는 조치다.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기조로 달러값이 폭등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하면서 마련됐다. 1985년 당시 달러당 254.2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3년 뒤인 1988년에는 달러당 128.2엔 수준까지 내렸고, 이후 환율은 달러당 100~140엔 수준에서 관리됐다.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엔화값은 지난 2021년부터 하락했다. 코로나19 당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높이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했던 일본과의 금리차가 벌어졌고, 2024년에는 연간 환율이 달러당 150엔을 넘겨 ‘초엔저’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넘기자 일본은행은 지난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의 종료를 선언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다.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60엔을 위협했던 엔·달러 환율도 140엔 중반까지 하락(엔화값 상승)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면서 2025년의 연간 환율은 다시 달러당 150엔 아래로 내렸다.

일본은행은 지난 6월까지 총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현재 일본은행 정책금리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차는 2.75%포인트(p)다. 코로나19 직후의 5.5%p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의 엔·달러 환율은 오히려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을 넘겨 엔화의 약세가 뚜렷하다.

◆ 금리 기대 깨져… 상승 모멘텀 부재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데도 엔화의 약세가 심화한 것은 연준이 지난해 말까지 지속했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중단하고, 금리 재인상에 돌입할 수 있

다는 분석에서다.

앞서 지난 2024년 하반기 엔화가 강세 전환한 것은 일본이 정책금리를 높일 것이라 여겨진 반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해 미·일 기준금리차가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 전망에서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미국 내 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같은 전망은 약해졌고, 미 연준과 일본은행이 모두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일본은행의 현재 정책금리는 연 1% 수준이다. 0.25%p를 인상한다면 기준금리의 25%를 인상하는 만큼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 반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연 3.75% 수준으로 0.25%p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향후 일본은행과 미 연준이 모두 금리 인상에 돌입한다면, 미·일 기준금리차는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입 우려도 엔화값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일본은 중동산 원유에 에너지의 약 90%를 의존한다.

◆ 엇갈린 원화와 엔화

통상적으로 원화는 엔화를 따라 움직인 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가 유사하

고, 같은 지역 통화로 묶이는 성향이 있는 만큼 원화는 기축통화인 엔화에 동조성을 띤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는 ‘중동사태’ 여파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원화 가치와 일본의 엔화 가치가 나란히 하락하며 ‘역대급 약세’를 기록했다.

원화와 엔화는 이달 초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상황이 엇갈렸다. S&K하이닉스발(發) 달러 자금 공급으로 달러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일부 해소되면서 원화값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 17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 증가(오후 3시 30분 증가)는 1478.5원으로, 6월 말과 비교해 70원 넘게 내렸다. 이달 들어 달러 대비 원화값은 4.27% 올라 주요국 가운데 절상률 1위를 기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의 구두성 개입 발언에도 중동사태 영향으로 엔화값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면서 “다만 엔화의 약세에 베풀려는 투기적 순매도 규모는 2주 연속으로 감소했다.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는 주목되는 변수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최태원 “이해관계자 침해 땐 성과급 바꿔야”

SK하이닉스 ‘영업익 10%’ 성과급
시행 1년도 안 돼 자사주 지급 논의
“긍정적 효과도… 몇 년 지켜봐야”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연동 성과급’이 시행 1년도 안 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노사가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처음으로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



닉스는 지난 14일 열린 제3차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초과이익분 배급(PS)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급 비중과 대상, 의무보유 기간 등은 노사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S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00%였던 PS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산정된 성과급의 80%는 당해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실적이 늘어도 PS가 기본급 100%를 넘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 실적과 임직원 보상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요구했고,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이익의 10%를 적용하면 PS 재원은 20조원을 웃돈다.

임직원 수로 단순 환산하면 1인당 지급액이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

노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보다 지급 방식을 먼저 논의하는 것도 대규모 현금 지급과 관련이 있다. PS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면 회사는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임직원은 주가가 오를 경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실제 수령 가치가 낮아질 수 있어 노조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이번 교섭 결과는 다른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자사주 지급 비중과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적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업계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 “구성원들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며 “1년도 안 된 합의를 바꾸는 것도 스트레스인 만큼 몇 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침해했다면 손을 대고 바꿔야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경쟁사 ‘애플’도 고객… 기술력으로 OLED 시장 휩쓸다

③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폴더블 기술을 앞세워 애플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노트북용 OLED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반기 출시되는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에 화면을 공급하고 아산 8.6세대 라인 가동으로 노트북용 패널 양산에도 돌입했다. 갤럭시를 넘어 아이폰까지 고객을 넓히고 스마트폰에서 노트북으로 적용 제품군도 확대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30년 약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중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20일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의 ‘2026 중대형 OLED 디스플레이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중대형 OLED 시장은 올해 약 115억달러에서 2030년 약 200억달러(약 30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4년간 약 74% 성장하는 것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14.8%에 달한다. 중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아직 액정표시장치(LCD)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고해상도와 고주사율 등 프리미엄 성능 수요가 늘면서 OLED 채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공급… 커지는 폴더블 시장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폴더블 OLED를 양산한 이후 갤럭시 Z 시리즈에 패널을 공급해 왔다. 오는 22일 런던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되는 갤럭시 Z 폴드8은 기존보다 가로가 넓고 세로가 짧은 이른바 ‘여권형’ 디자인을 채택할 전망이다. 새 화면비의 내외부 패널에 티타늄 기반 디스플레이 구조를 적용해 화면 주름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면비 변경과 주름 개선은 모두 패널 설계 기술에 달려 있어 신제품 완성도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이 좌우하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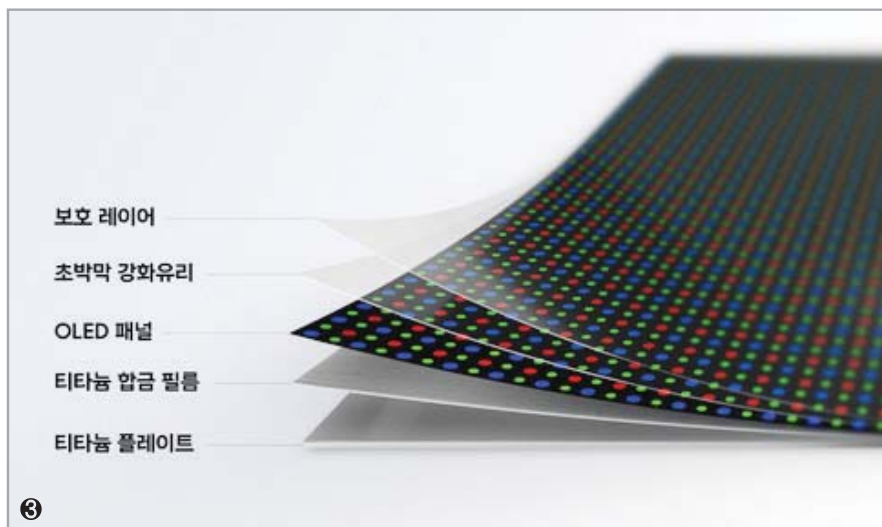
애플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첫 폴더블 아이폰에도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된다. 하반기부터 패널 조달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옴디아 집계 기준 지난해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 56.8%로 1위를 기록한 애플의 최대 디스플레이 공급사다. 모회사 삼성전자가 완제품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는 것과 달리 부품에서는 갤럭시와 아이폰 중 어느 쪽 판매가 늘어도 삼성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하는 구조다.

애플의 진입으로 폴더블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2분기 폴더블-롤러블 디스플레이 출하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은 약 2750만장으로 전년 대비 24% 늘고 패널 매출은 약 44억달러로 48% 증가할 전망이다. 단순한 물량 회복이 아니라 평균판매가격(ASP) 상승과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가 시장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첫 폴더블 아이폰은 출시 첫해 폴더블폰 시장에서 약 28%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물량이 아닌 단가가 이익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반도체에서 시작된 슈퍼사이클 흐름이 디스플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갤럭시 Z 폴드8과 폴더블 아이폰이 잇달아 출시되면 삼성디



중대형 OLED 시장 선점 박차… 2030년 약 30조 규모 전망
내일 런던서 Z 폴드 8 공개, 티타늄 디스플레이로 내구성 ↑
애플 첫 폴더블 폰에도 패널 탑재… 아이폰 최고 공급자

아산 8.6세대 IT용 OLED 라인으로 노트북·태블릿 공략
1분기 매출 6.7조, 영업이익 4000억… 3분기 반등 전 과도기



④

스스플레이는 세계 프리미엄 폴더블폰 양대 진영에 모두 패널을 공급하게 된다.

◆ 8.6세대 라인 가동… 노트북과 모니터로 영토 확장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 이어 중대형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4조1000억원을 투자한 아산 8.6세대 IT용 OLED 라인 양산을 시작으로 노트북과 태블릿용 패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8.6세대 라인은 기존 6세대 대비 유리원장 면적이 두 배 이상 넓어 노트북용 패널 생산 효율이



⑤

높다. 스마트폰 신제품 주기에 실적이 좌우되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계절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노트북용 탠덤 OLED를 글로벌 PC 제조업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유기 발광층을 두 층으로 쌓는 탠덤 구조를 적용해 밝기는 최대 1600니트로 높이고 수명은 기존 단일 발광층 패널의 2배 이상으로 늘어 영상전자표준위원회(VESA)의 신설 최고 등급 인증인 ‘디스플레이HDR 트루블랙 1400’ 기준을

①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가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 생방송 캡처화면

② 생성형 AI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사업 확대를 향상화한 이미지.

③ 플렉스 티타늄 디스플레이 이미지. /삼성전자

④ 폴더블 아이폰 예상 이미지. /IT팁스터 애플 사이클 X 캡처

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8’로 추정되는 제품을 손에 들고 있다. /제이홉 인스타그램 캡처

충족했다. 이 패널을 탑재한 레노버 노트북이 이달 첫 인증을 받았고 하반기부터 에이수스와 델 테크놀로지스 등으로 탑재가 확대될 예정이다.

모니터용 OLED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게이밍 모니터용 OLED 수요 호조로 대형 사업에서 안정적인 판매를 유지했다. 유비리서치는 게이밍과 콘텐츠 소비 환경에서 OLED의 고주사율과 빠른 응답속도 등이 소비자 체감 가치로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모니터를 가장 빠른 성장 축으로 지목했다. 2030년에는 모니터용 OLED가 전체 중대형 OLED 시장의 약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 기반도 유리하다. 중대형 OLED 생산은 한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9인치 이상 대형 OLED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92.4%에 달했고 TV용 OLED 패널은 전량 한국에서 생산됐다.

◆ 중소형 비수기와 중국 추격… 하반기가 분수령

관건은 하반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매출 6조7000억원과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형 패널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데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고객사 수요가 줄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 29% 감소했다. 폴더블 패널 시장도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 조정과 신제품 공백이 겹치며 1분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1분기 시장을 본격 반등을 앞둔 과도기로 분석했다. 갤럭시 Z 폴드8과 폴더블 아이폰용 패널 공급이 본격화하는 3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트북용 OLED의 확산 속도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노트북과 태블릿PC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등 핵심 부품의 원가비중이 커 디스플레이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OLED 탑재로 높아진 가격을 소비자가 받아들이지가 시장 확산의 관건으로 꼽힌다.

결국 애플 공급 확대와 노트북용 OLED 시장 개화를 성장동력으로 삼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 속에서 기술 격차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용욱 삼성디스플레이 IT전략마케팅팀장 상무는 트루블랙 1400 기준을 충족한 노트북용 OLED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소재 기술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며 “고성능 OLED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1960년대 한 기업가의 말입니다

저희의 희망은
그리고 희망은
도저히 아티팩트이다
은근의 표정은
소비자 디자인
소비자 디자인
저희의 희망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바뀌어 있다

與 강행·野 필리버스터…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두고 격돌

개정안 통과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국힘, 규탄대회 열고 법안처리 비판 오늘 본회의서 연장안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종합특검 연장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종합 특검 연장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로 늘어나며, 특검 과건 공무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의 직전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 직무대행은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 속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에서도 내란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월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 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부실 사건이나 윤석열 체

포 방해 혐의 등 남은 의혹도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란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상식의 문제”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이

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후 본회의장 앞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처리 반대 구호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의 규탄사를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란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데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알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실익도 명분도 전혀 없다.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면서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 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특검을 왜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

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그동안 주어진 수사 기간을 이미 다 썼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되는데 또다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며 “특검은 먼저 (연장하려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수사 기간이 짧아서’, ‘수사가 미진해서’, ‘새 의혹이 나와서’, ‘수사 성과가 없어서’라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이 된다면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건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여권은 토론 종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21일 오후 2차종합특검 연장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공명선거 다짐했지만… 與 당권주자 ‘난타전’ 국민의힘, 이번주 윤리위 열고 징계 착수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공개 발언 등서 견제하며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 공명 선거를 다짐했다. 다만, 당 대표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등 거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에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예비후보(기호 순)가 후보 등록했고, 최고위원 선거엔 박선원·이건태·이성운·김용·박성준·박승원·정민철·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신계륜·김형남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모두발언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기점으로 선의의 경쟁과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의 당부와는 달리 당 대표 예비후보들은 강한 메시지를 내며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이였다. 송영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당권주자 김보미(왼쪽부터) 전 강진군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선 전 총리, 고민정, 송영길 의원이 서약서에서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예비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임 대표인 정청래 예비후보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당청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후보가 정 예비후보라며, 전당대회 시 국민의힘 지지자의 ‘역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송 예비후보는 “우리 내부에도 얼마든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예비후보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흔들리는 이 상황이 핵심 지지층에 실망

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 않으면 실제로 공소청·중수청은 하나 마나”라며 “10%의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 당원들에게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의원총회에 제가 앉아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다”며 “이런 주장을 절대 다수가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분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보다는 예외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대표, 주말까지 시위 참여

국민의힘이 이번 주중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를 소집하고 6·3 지방선거 전후 당원으로부터 접수된 60여건의 징계요구서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당은 책임과 규율이라는 원칙 아래서 운영되는 정치결사체”라며 정상적인 절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오는 25일 경남 김해시와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참정권 훼손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의 후 기자회견과 만나 이른바 ‘징계정치’로 지지율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질문에 “윤리위는 당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칙인 책임과 규율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당 지지율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로 접수된 징계요구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선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는 이른

바 ‘단풍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선관위 개혁,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 참정권 훼손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의 복당이 언급되는 시점부터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은 대야공세를 할 때고 특정인의 복당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단정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1%), 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40.0%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대표의 장외투쟁 참여는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장 대표는 오는 2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열리는 참정권 훼손 규탄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오는 25일 경남 김해시와 대구광역시를 각각 방문해 시위 현장을 찾는다. /박태홍 기자

靑, ‘기업 초과이윤 배분’ 수보회의 연기

추가 논의 필요하다는 판단

청와대는 20일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는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주제와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열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취소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선 경제수석실·사회수석실 등 각 수석실이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관련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날 오전 안전상 정 자체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소 배경에 대해 “주제 및 일

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 사회적 투자 논의를 초과세수에서 초과이윤으로 넓히려면, 사회적으로 관련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후 청와대에서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반도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촉발된 국내 증시 하락세도 회의 취소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靑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사진)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조용범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2026년 SK의 생각입니다

AI시대불안과기대는
도저히이아티며이다
은니표짓는이다
소비다디치트
노아구구트스
불안은기대도
비극수이다

SK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금리 상승’ 자금조달 부담… 2금융권, 하반기 업황 ‘빨간불’

신평사, 2금융권 전망 ‘부정적’
은행·보험 등 업황 ‘중립적’ 진단
만기 여전채, 고금리 차환 가능성
취약차주 중심 연체율 상승 우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제2금융에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다. 금리 상승이 자금 조달비용 부담 확대에 이어져서다. 여기에 다중채무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까지 더해질 경우 수익성·건전성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카드·캐피탈·저축은행 업계의 하반기 전망 지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은행·보험·증권사업황을 ‘중립적’으로 진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통적으로 2금융권의 자금 조달 비용 확대가 악재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기준금리 상승은 2금융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대표 요인이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국고채, 금융채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에 의존하는 카드사, 캐피탈사의 경

우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만기가 다가오는 여전채 금리를 더 높은 이자로 차환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금리 인상 기조와 최근 단기 물 발행 추세가 맞물리면 차환 위험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김석우나이스신용평가수석연구원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 신규 조달 금리가 만기 때 예정 카드채 금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금리로 발행된 채권 영향으로 지난 1분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이자비용률은 다시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도 단기적인 조달 원가 상승이 예상된다. 동시에 대출 금리로의 비용 전가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를 감안하면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NIM은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이를 이자수익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NIM이 축소되면 수익성 기반이 약해진다. 자금 조달 비용에 더해 연체율 상승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의 경우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 위험이 1금융권 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이 43조원을 넘어서면서 금리 상승이 가계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해 시중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압력 역시 가중될 것”이라며 “신용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축은행도 수신 경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늘려온 만큼, 금리 상승 기조가 더 해지면 대출 금리 인상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저축은행 차주의 신용위험 확대,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김연수 수석연구원은 “누적된 고금리 부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중첩되면 자산건전성의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주요 차주는 다중채무자, 저신용 가계 및 개인사업자 등 한계 차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리 상승이 이어질수록 실질 차분가능소득 감소와 함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금리인상 지역별 온도차 ‘통화정책 과제’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흐름 달라
서울 매매 1.21% 오를때 지방 0.01%
“통화정책, 집값만 목표 운용 안돼”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려 수도권 주택시장에도 제동을 걸었지만 전국에 하나뿐인 기준금리가 지역별로 같은 효과를 내진 않는다는 분석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흐름뿐 아니라 금리 충격에 대한 민감도도 다르게 나타나면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 분담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집값만을 겨냥한 결정은 아니다. 한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고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금융안정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안정 부문에서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 월 8조~9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직접 지목했다.

◆ 수도권 집값만 더 민감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직전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뚜렷하게 갈렸다. 한

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1.21%, 수도권이 0.81% 오른 반면 지방은 0.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국 상승률은 0.40%였다.

최신 주간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30%, 수도권은 0.21% 올랐지만 지방 상승률은 0.01%에 머물렀다. 제주와 경북, 충남, 대구 등은 하락했고 전국 182개 시·군·구 가운데 64곳의 집값이 내렸다. 해당 통계는 금리 인상 전에 집계된 만큼 이번 결정의 효과가 아니라 금통위가 마주한 주택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같은 금리 인상이라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통화정책이 지역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0.25%p 기준금리 인상에 상응하는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수도권 주택가격은 1년 후 약 0.6% 낮아지는 반응을 보였다. 5대 광역시는 약 0.4% 하락했지만 기타 도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별 집값과 대출 규모 차이가 금리 민감도를 갈랐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5억 4000만원으로 기타 도 지역 평균인 2억 4000만원의 6

배를 웃돌았다. 차주당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수도권이 약 2억 4000만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15~60% 많았다. 집값과 레버리지가 높은 지역일수록 금리 상승이 주택 수요와 가격에 더 강하게 전달된다는 분석이다.

◆ 신현승 “통화정책으로 집값 잡는 것은 무리”

따라서 지역과 주택가격,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수요를 겨냥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 기준금리는 물가와 총수요, 경제 전반의 신용팽창을 조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위험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신현승 한은 총재도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집값만을 목표로 운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가 인상 과정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뿐 아니라 정부 대출규제의 효과가 함께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상도15구역 재개발 ‘상도 씨앗’ 투시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1.4조 상도 15구역 재개발 수주

최대 35층 30개동 3207세대 규모

대우건설이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공사비만 1조 436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0개동, 320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동작 최대 규모의 통합 재개발 대단지인 상도15구역을 위해 월드클래스 설계사인 SMDP와 손을 잡고, ‘상도 씨앗’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지역의 상징인 국사봉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강과 도심, 국사봉 조망은

물론 단지 내부 조망도 가능한 와이드 조망형 창호를 적용해 차별화된 뷰를 선사할 예정이다.

조경 특화 설계로 사업지 단지를 최소화해 약 4600여평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평지와 같은 보행 환경을 구현해 쾌적한 일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한 덮개공원과 총 8km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며 단지 전역을 하나로 잇는 워커블(Walkable)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며 사업비를 책임 조달한다. 원활한 이주를 위해 LTV 100%를 제안했으며, 분담금 입주시 100% 납부, 씨앗 프리미엄을 통한 일반 분양수의 극대화 전략 등을 제안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 햇살론유스’ 보증료 10만원 지원

신한은행, 청년 금융애로 해소 일환

신한은행은 청년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한 햇살론유스’ 보증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햇살론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사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해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사업자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5일부터 ‘신한 햇살론유스’ 대출을 신규 실행하고 보증료와 이자를 정산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대출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참

여되며, 준비된 지원 한도가 소진될 경우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증료 지원금은 대출 신규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말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7월부터 9월까지 대출을 신규한 고객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학업과 취업 준비,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청년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 수입기업 성장지원 나서

한국수입협회·기보와 업무협약

하나은행은 한국수입협회, 기술보증기금과 국내 수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금리와 고환율,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 수입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에 7억원을 특별 출연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수입협회가 추천하는 정회원사로, 하나은행은 이들 중소·중견 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 보증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보증료 0.7%포인트(p) 최대 2년간 지원 ▲대출금리 우대 ▲환율·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금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LG AI연구원-유네스코, 교육 기반 ‘책임있는 AI’ 시대 선도

‘AI 윤리 MOOC 프로젝트’ 론칭
온라인 교육과정 공개… 무료 수강
사례 기반 연수 프로그램 확대 계획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가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AI 윤리 교육 과정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윤리 확산에 나섰다.

LG AI연구원은 서울 명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와 함께 ‘AI 윤리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프로젝트’ 글로벌 런칭 행사를 열고 온라인 교육 과정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한 중인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흥헌익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지난 2024년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약 2년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이번 AI 윤리 MOOC를 선보이게 됐다.

프로젝트는 AI 개발자와 연구자, 정책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가 20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AI 윤리 MOOC 프로젝트 글로벌 런칭 행사를 열었다

입안자 등을 대상으로 AI를 책임 있게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한국의 민간 AI 연구기관이 유엔 전문가와 함께 기획 단계부터 콘텐츠 개발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LG AI연구원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능 경쟁뿐 아

니라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와 국제기구들도 AI 안전성과 윤리 교육, 국제 공조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가 선보인 교육 과정은 지난 2021년 유네스코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AI 윤리 권고’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단순히 윤리 원칙을 소개하는 데 그

치지 않고 개발자와 연구자, 정책 입안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세계적인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인 코세라(Coursera)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전 세계 누구나 국가나 지역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책임 있는 AI 개발 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총 10개 모듈로 구성된 교육 과정에는 카네기멜런대와 스탠퍼드대 메코이 윤리 센터,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 뮌헨공대 사회과학기술대학, 앨런 튜링 연구소 등 글로벌 AI 윤리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도 강의 개발에 참여해 다양한 지역의 정책과 사례를 반영했다.

또 국제지문그룹에는 하버드대와 뉴욕대, 토론토대, 노르트담대, 유엔대학교, 유네스코 세계과학윤리위원회(COMEST), 모질라 재단 등 글로벌 학계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 과정의 완성도를 높였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이번 MO

OC를 온라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례 기반 학습과 실습을 포함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국내 AI 개발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시범 연수를 실시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국 5~10개 거점대학으로 교육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LG AI연구원은 앞으로도 유네스코와 함께 AI 윤리 글로벌 포럼과 AI 서울 정상회의,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등 주요 국제 논의에 참여하며 책임 있는 AI 개발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AI 윤리는 기술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원칙이자 실천”이라며 “이번 글로벌 MOOC가 개발자와 연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산업계 전반에 책임 있는 AI 혁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삼성, 루브르 작품 등 아트 TV 생태계 확장

삼성 아트 스토어에 작품 대거 추가
아트 바젤 홍콩 등 글로벌 협업 확대

삼성전자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 소장 작품을 대거 추가하며 TV 기반 예술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세계 주요 미술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프리미엄 TV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아트 TV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삼성 TV 전용 예술 구독 서비스인 ‘삼성 아트 스토어’에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작품 34점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루브르 컬렉션은 기존 17점에서 총 51점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공개된 작품은 르네상스부터 신고전주의,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예술 사조를 대표하는 명작들이다. 프랑스 신고전주의와 아카데미즘 회화를 대표하는 도미니크 파페티의 ‘우물가의 그리스 여인들’과 니콜라 푸생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등이 포함됐다.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루브르 박물관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다.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Orpheus and Eurydice)’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이와 함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파올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그랑 오달리스크’ 등 루브르 대표 소장 작품도 계속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루브르 컬렉션 확대를 계기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현대미술

관(MoMA), 오르세 미술관 등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올해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 아트 바젤 홍콩, 아트 바젤 바젤 컬렉션 등을 잇달아 선보이며 글로벌 미술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삼성 TV 전용 예술 구독 서비스로, 117개국 이상에서 800명 이상의 작가와 80여 개 문화예술 기관의 5000여 점 작품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올해 출시된 OLED(SH95)를 비롯해 더 프레임, 더 프레임 프로, 마이크로 RGB, 네오 QLED 등 2026년형 삼성 아트 TV 라인업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욤 로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부사장은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최고 수준의 예술 및 문화유산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삼성 아트 TV를 통해 미술관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수백만 가정에 당대 최고의 걸작들을 선보이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D현대-네이버, 조선산업 AI 전환 ‘맞손’

조선업 특화 AI 인프라 구축
미래 선박 기술개발 공동 추진

HD현대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조선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에 나선다. 양사는 조선업에 특화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조선소와 미래 선박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피지컬 AI 기반 조선 사업 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업 특화 AI·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데이터센터 및 통합 전력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중심 선박(SDV) 및 조선 AX(AI 전환) 기술 협력 ▲피지컬 AI·로봇 기술 활용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우선 조선업 맞춤형 클라우드와 AI 팩토리를 구축해 설계부터 생산, 연구개발에 이르는 조선 사업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공동 전문조직을 구성해 AI 활용 모델 발굴, 기술 검증,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분야 협력도



HD현대가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피지컬 AI 기반 조선 사업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HD한국조선해양 김형관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추진한다. HD현대가 보유한 친환경 엔진 기술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연료 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활용해 데이터센터용 전력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조선소 구현에도 나선다. 양사는 선박 데이터 플랫폼과 AI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을 접목한 AI 모델을 공동 개발·실증하고,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선박을 제어·운영하는 SDV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LS, JCR ‘A0’ 신용등급 획득… 안정적 수익구조 인정받아

日 등 해외 자금 조달조건 개선 기대

LS가 일본 신용평가사로부터 우수한 신용도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해외 자금 조달 기반을 넓히고 조달 비용 절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LS는 일본의 대표 신용평가사인 JCR로부터 ‘A0(안정적)’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LS의 ‘A0’ 등급 획득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인 신용도를 공인받은 것으로, LS의 사업 구조와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JCR로부터 A0 등급을 받은 국내 기업의 국내 신용도는 AA-수준인데 반해, (주)LS는 A+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1단계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인정받은 셈이다

JCR은 평가 보고서를 통해 “㈜LS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MnM 등 확고한 시장 경쟁력을 갖춘 핵심 사업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연결 기준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LS는 국내 신용평가사들

로부터도 신용등급 전망 상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지난 6월 말 ㈜LS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으며, 이번 전망 변경은 향후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LS 관계자는 “JCR로부터 ‘A0’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일본 은행과의 대출 약정을 확대하고 금융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전자 ‘엑스봄 스테이지 501’ 출시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운 파티용 블루투스 스피커 신제품을 선보이며 휴대용 오디오 시장 공략에 나섰다. 강력한 출력과 공간에 맞춘 음향 보정 기능을 더해 실내의 어디서나 공연장 같은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LG전자는 파티용 블루투스 스피커 신제품 ‘엑스봄 스테이지 501’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엑스봄 스테이지 501은 파티의 분위기를 완성시켜주는 강력한 사운드와 공간

을 무대로 바꿔주는 AI 노래방 마스터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계적인 뮤지션 월아이엠이 튜닝한 엑스봄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덴마크 오디오 브랜드 피어리스의 음향기술이 담긴 2개의 우퍼와 2개의 전대역 드라이버를 통해 파워풀하게 구현한다.

제품 색상은 블랙, 크기는 폭 30cm, 높이 59cm, 깊이 30cm가량이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5시간 무선 재생이 가능하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69만9000원. LG전자 공식 온라인 브랜드숍 LGE닷컴과 온라인 전문점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종잇값 71% 올린 담합... 중소인쇄업계, 과징금 감면에 ‘분통’

중소인쇄업계 “피해회복 대책 마련”
공정위, 제지 6사에 과징금 3383억
한솔제지 리니언스로 전액 면제
무림 3社도 과징금 517억 줄어

“공정경제 기조에 역행” 강력 반발
제도 개선·가격 관행 중단 촉구

단행본, 교과서, 잡지 등을 인쇄하는 중소기업들이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 등 6개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담합) 과징금 감면 결정에 잔뜩 뽐이 났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협동조합들은 20일 낸 성명서에서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기업의 담합 행위로부터 영세 인쇄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 감면 기준, 심의 과정 투명 공개 ▲



제미나리로 생성한 인쇄용지 가격 담합과 제지사 과징금 논란 이미지.

대기업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조속 수립 ▲리니언시 제도 실효성 전면 재검토 ▲중소기업 피해구제 실질적 강화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착수 ▲인쇄용지 제조사의 일방적 가격 결정 관행 즉각 중단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상생협력을 위한 제조사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말 한솔제지, 무림그룹 계열의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 그리고 한국제지, 흥원제지 총 6개사가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들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한솔제지가 1426억원으로 가장 많고 무림그룹 계열 3사가 총 1382억원으로 두번째 많다. 6개사 가운데 한국제지와 흥원제지는 과징금 부과에 더

해 검찰 고발도 결정됐다.

이들 6개 제지사에 내려진 과징금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액수 중 역대 5번째로 크다. 제지업계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선 가장 큰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장기·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만나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이 기간 판매가가 톤(t)당 84만1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평균 71% 상승했다.

이같은 제지사들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은 중소 인쇄업체의 인쇄비, 출판사의 제작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은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보 등을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했다. 이득은 제지사가 가져가고, 피해는 중간·최종 소비자가 본 것이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6개 제지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95%, 수입 인쇄용지가 지 감안하면 약 81%로 절대적이어서 시장 여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과징금을 가장 크게 맞았던 한솔제지는 이후 전액 감면을 받

았다. 한솔제지는 지난 6월 12일 공시를 통해 “부과금액(1425억8000만원)은 공정위 의결에 의해 납부 면제됐다”고 밝혔다.

무림피앤피도 같은날 공시를 내고 과징금을 919억5700만원에서 574억7300만원으로 정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무림그룹 계열사 3곳이 감면받은 액수는 총 5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솔제지와 무림 계열사들에게 내려진 과징금이 면제 또는 줄어든 것은 ‘리니언시 (leniency) 제도’ 때문이다. ‘자진신고감면제’ 등으로도 불리는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 등이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인쇄업계는 이번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치유될 때까지 정부, 정치권을 대상으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중소 인쇄업체와 끝까지 연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삼성디스플레이, 더 밝고 오래가는 노트북 OLED 공급

노트북용 탠덤 OLED 상용화 본격화
최대 1600니트·기준 대비 수명 2배
VESA 최고등급 ‘트루블랙 1400’ 충족

삼성디스플레이가 최대 1600니트(nit) 밝기를 구현하는 노트북용 탠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글로벌 PC 제조사에 본격 공급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가 이달 신설한 최고 등급 화질 인증을 충족하는 패널을 상용화 단계에서 곧바로 내놓으며 프리미엄 노트북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20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노트북용 탠덤 OLED는 영상전자표준위원회(VESA)의 신규 고휘도 인증 등급 ‘디스플레이HDR 트루블랙 1400’ 기준을 충족한다. 회사는 해당 패널



VESA의 새로운 고휘도 디스플레이 인증 등급 ‘DisplayHDR™ True Black 1400’ 획득을 지원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노트북용 탠덤 OLED 데모 제품.

/삼성디스플레이

을 글로벌 PC 제조사에 공급 중이며 하반기 중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OLED·QD-OLED 패널을 순차 선보일 계획이다.

트루블랙 1400은 지난 8일(현지시간) 공표된 트루블랙 규격의 최상위 등급으로

전문가용 HDR 콘텐츠 제작과 프리미엄 HDR 콘텐츠 감상을 겨냥해 신설됐다. 인증을 받으려면 최고 휘도 1400니트 이상을 달성하면서 블랙 표현은 0.0005니트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전체 화면 지속 휘도도 700니트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최고 등급인 트루블랙 1000 대비 휘도 기준이 40% 높아진 것으로 깊은 검은색과 강한 하이라이트를 동시에 검증하는 셈이다. 색 정확도·명암비·블랙 레벨 등 검증 항목을 확대한 신규 테스트 체계(CTS 1.2)가 함께 적용돼 인증 문턱 자체가 한층 높아졌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패널은 패널 기준 최대 1600니트까지 밝기를 끌어올렸다. 단일 발광층 구조인 싱글 스택 OLED의 최고 휘도 1100니트보다 40% 이상 높

은 수준으로 현재 상용화된 노트북용 OLED 가운데 최고 밝기다.

핵심은 유기 발광층을 두 개 층으로 쌓는 탠덤 구조다.

적층된 발광층이 함께 빛을 내기 때문에 동일 전류에서 더 높은 밝기를 내고, 같은 밝기에서는 발광층의 부담이 줄어 수명이 길어진다. 일반적인 노트북 사용 환경 기준 수명은 기존 싱글 스택 대비 2배 이상이다. 여기에 신규 유기 발광 소재를 적용해 같은 전력에서 구현 가능한 휘도와 수명을 함께 끌어올렸다.

고객사 확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당 패널을 탑재한 레노버 ‘요가 프로’ 16형 신제품은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트루블랙 1400 인증을 획득한 노트북이 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표시멘트

순환연료 비중 58%

탄소중립 전환 속도

삼표시멘트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쓰는 합성수지, 페타이어집 등 순환연료 사용 비중을 2030년까지 58%로 늘린다. 무연탄 대신 태우는 순환연료 비중은 지난해 43%였다. 시멘트 제조의 핵심 원료인 석회석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비산탄염(CaO) 원료 사용도 2025년 5%에서 2030년엔 7%까지 확대한다. 삼표시멘트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삼표시멘트 ESG 보고서’ (사진)를 20일 내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료 전환 ▲원료 및 제품 혁신 ▲기술 혁신의 3대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김승호 기자

공공부문 AI 활용... 7대 윤리 원칙 수립

소진공, 전 직원 참여 윤리 실천 서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윤리 실천 서약식을 갖고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원칙’을 수립했다.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대전 공단 본부에서 진행한 서약식은 AI를 활용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들의 올바른 AI 활용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리 원칙은 ‘소상공인과 국민을 위한 AI 활용’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정보보호 ▲전문성을 7대 핵심 원칙으로 구성했다. 앞서 소진공 전 직원은 실질적인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AI 윤리교육’을 이수했다. 지난 16일에는 NIA로부

터 ‘AI 윤리준수기관’으로 지정받아 공단이 AI를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과 윤리적 실천을 내재화하고 있음도 재확인했다.

소진공은 향후 AI 기반 업무혁신 과제의 기획부터 도입, 운영,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윤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AI 기술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혁신할 핵심 수단이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윤리 원칙 선포를 계기로 임직원의 책임 있는 AI 역할을 더욱 강화해 소진공이 공공부문 AI 선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한국엔컴퍼니, 야구장서 배터리 체험 팝업

한국타이어와 ‘스트라이크존’ 운영

한국엔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한국 배터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체험형 팝업 행사를 개최했다.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배터리와 타이어 브랜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엔컴퍼니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야외 광장에서 ‘스트라이크존(STRIKE ZONE)’ 팝업 이벤트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AGM 배터리를 주제로 한 ‘배터리 타임어택’ 프로그램을



한국(HANKOOK) 프리미엄 AGM배터리.

운영했다. 배터리 모양의 타이머가 작동하면 참가자가 정확히 2초에 맞춰 스톱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제품의 2년 품질보증을 체험 요소와 연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를 굴러볼링핀을 쓰러뜨리는 ‘타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이어 튜브를 던져 막대에 거는 ‘타이어 링토스’ 등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했다.

/양성운 기자 ysw@

가온전선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美 전력망·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가온전선이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성장과 고부가 제품 수출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가온전선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 1조6330억원, 영업이익 640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3%, 41.8%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반기 기준 최대치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웃돌면서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이어졌다. 실적 성장은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케이블과 버스덕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미국 내 배전 케이블 공급 부족과 전력망 투자 확대도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 미국 생산법인 LSCUS의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유해근 기자 dhakshak@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열정 가득한 청년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청년의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해
도전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도록

하나가 청년들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대상 인턴십 지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 연계 청년 일경험 제공

실무형 금융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

·하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 운영

지역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

·전국 30개 대학 연계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개발 쉽고, 공급 늘었지만… 대형사만 ‘독식’

게임사, AI 전환 양극화

생성형 AI로 개발비용·시간 단축
진입장벽 낮아지며 신작 출시 많아져
이용자, 완성도·운영 검증 게임 선택
개발력보다 마케팅 등에 흥행 좌우
국내 게임사, 핵심·신규IP 집중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게임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개발 기간과 비용은 줄고, 소규모 개발사도 과거보다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정작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AI로 게임 공급은 빠르게 늘어난 반면 이용자들의 선택은 검증된 장수 지식재산권(IP)과 대형 신작으로 집중되면서 게임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그래픽 제작과 프로그래밍, 번역, 품질검증(QA) 등 게임 개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인디 개발사까지 활용이 늘고 있다. 실제 올해 스팀에 출시된 신규 게임 가운데 AI 활용 사실을 공개한 게임 비중도 약 30%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장의 돈은 오히려 기존 인기 게임과 대형 IP로 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알리니아에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 스팀의 전체 매출은 111억



생성형 AI로 게임 개발 기간과 비용은 줄고, 소규모 개발사도 과거보다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정작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AI가 만든 이미지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당 연도 출시된 신작의 매출 비중은 21%에 그쳤다. 2024년 29%, 2025년 27%에서 올해 21%까지 하락하며 시장은 커졌지만 신작이 가져가는 몫은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AI가 직접 흥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기보다 게임 공급 증가와 이용자의 선택 집중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 AI가 만든 ‘게임 홍수’…이용자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AI 도입으로 콘텐츠 제작 속도가 빨라지고 개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글로벌 플랫폼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게임이 출시되고 있다. 반면 이용자가 실제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 만큼 이미 완성도와 운영 능력이 검증된 게임에 머

무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AI 덕분에 게임을 만드는 비용은 줄었지만 이용자의 선택을 받는 비용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개발력보다 마케팅과 라이브 서비스 운영 역량, 브랜드 경쟁력이 흥행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스팀에서도 일부 대형 신작이 흥행에 성공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기존 인기 게임들의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흥행에 성공하는 게임이 더욱 소수로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넥슨·엔씨도 ‘선택과 집중’…IP 경쟁력 강화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비슷한 전략을 택하고 있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

리’, ‘FC’ 등 핵심 IP의 글로벌 확장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프로젝트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품 위주로 개발 역량을 배분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조직 효율화를 진행하며 기존 IP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프로젝트를 재정비하고 있다. 크래프톤 역시 ‘PUBG: 배틀그라운드’ 라이브 서비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튜디오 투자와 신규 IP 확보를 병행하면서도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AI 때문이라기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개발 환경 변화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확산으로 게임 공급이 더욱 늘어날수록 기존 IP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AI는 앞으로 모든 게임사가 활용하는 기본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AI 자체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와 IP를 보유하고 얼마나 오래 이용자를 붙잡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AI는 게임 제작의 효율을 높이고 있지만 시장의 경쟁 기준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AI가 게임 개발의 표준 기술이 될수록 차별화 요소는 기술이 아니라 IP와 콘텐츠, 라이브 서비스 운영 능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가 개발 방식은 바꾸고 있지만 흥행의 공식까지 바꾸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그라비티 MMORPG ‘라그나로크’ 북중남미 정식 출시

그라비티의 홍콩 지사 그라비티 게임 비전(GGV)은 3D MMORPG ‘라그나로크: 리버스 글로벌’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북중남미 지역에 정식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북중남미 지역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내려받아 플레이할 수 있다.

‘라그나로크: 리버스글로벌’은 라그나로크 IP 특유의 감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편의 기능을 더한 방치형 MMORPG다. 가로·세로 화면 전환을 지원해 콘텐츠 특성에 따라 플레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10종 이상의 직업을 조합해 직업간 시너지와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 거래 시스템도 적용했다. 광물 채집과 낚시, 자원 수집, 필드 사냥 등에 펫을 파견할 수 있으며, 획득한 재료는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과금 부담을 낮췄다.

그라비티는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8월 21일까지 매일 접속한 이용자에게 성장 재화와 육성 아이템을 지급하며, 서버 전체의 던전 참여도에 따라 한정 헤드기어도 제공한다. 상시 이벤트에서는 매일 지급되는 카드를 모아 이벤트 카드 8종을 모두 획득하면 특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식 커뮤니티에서는 최초로 MVP 보스를 처치한 이용자에게 특별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빛나 기자

“KT 알뜰로밍 사용하고 동남아 여행 편리하게”

7일간 데이터 3G·음성통화 30분
현지기업 제휴로 최대 10만원 혜택

KT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시아 여행객 대상 알뜰로밍 상품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알뜰로밍 상품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7일 간 데이터 용량 3G와 음성통화 30분을 제공한다.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2만5000원이다.

로밍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현지 기업과 제휴 할인 혜택도 있다. 고객들은 입국 시 문자메세지로 자동 발송되는 트래블 패스 코드를 그림 앱에 등록하면 된다. 차량 호출, 음식 배달, 마트 쇼핑 서비스 등 이용할때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휴 혜택은 알뜰로밍 상품을 비롯해 함께쓰는로밍, Y함께쓰는로밍, 하루종일로밍 베이직·플러스·프리미엄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msjo@

‘카나나-오’로 반려동물 편지 만든다

카카오, ‘카나나 펫레터 만들기’ 진행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옴니모달 인공지능(AI) 모델 ‘카나나-오(Kanana-o)’를 활용한 ‘카나나 펫레터 만들기’ 이벤트를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AI가 반려동물 사진을 분석해 속마음을 유추한 편지 형식의 ‘펫레터’를 제작해주는 체험형 콘텐츠다. 이용자들이 AI 기술을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카나나-오는 텍스트와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카카오의 자체 개발 옴니모달 AI 모델이다. 반려동물의 표정과 사진 속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성적인 편지와 음성 메시지를 생성한다.

이벤트 참여자 대상 경품 행사도 마련했다. 펫레터를 제작한 이용자는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상품권을 제공한다. 완성된 펫레터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카나나 공식 계정 ‘kanana.ai’를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30만원 상당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상품권도 증정한다. /최빛나 기자

삼성SDS, 퓨리오사AI NPU 구독 서비스

2세대 NPU ‘레니게이트’ 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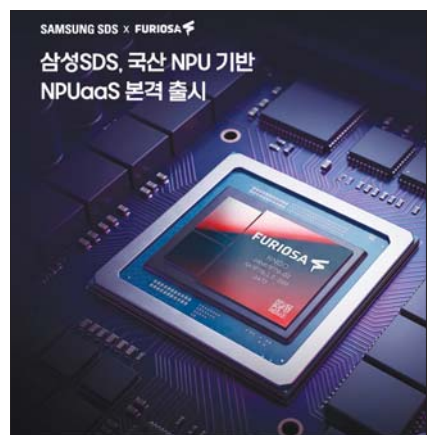
삼성SDS는 퓨리오사AI의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구독 모델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에 퓨리오사AI가 개발한 2세대 NPU ‘레니게이트’를 탑재한 NPU 구독 서비스(NPUaaS)다.

레니게이트는 이미 학습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답변 생성, 문서 분석, 이미지 판별 등을 처리한다. 이 단계에서 GPU 대비 전력 효율성과 가성비가 뛰어난게 특징이다.

구독 고객은 NPU 서버를 직접 구매하거나 자체 데이터센터에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데이터 규모에 따라 NPU를 원



삼성SDS가 퓨리오사AI NPU 기반 구독 모델을 출시했다. /삼성SDS

하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존 SCP 상품인 고성능 스토리지와 컴퓨트, 고속 네트워크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네이버, ‘블로그 있어요’ 프로젝트 시작

첫 번째 주인공에 래퍼 ‘닉살’

네이버는 유명인과 전문 블로거의 꾸준한 기록을 소개하는 ‘블로거 대발견 프로젝트, 블로그 있어요’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블로그 있어요’는 방송과 무대, 경기장 등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블로그를 통해 일상과 관심사를 꾸준히 기록해온 유명인과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블로거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네

이버는 앞으로 12주 동안 매주 한 명씩 새로운 주인공을 선정해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와 대표 콘텐츠, 블로그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공개한다.

첫 번째 주인공은 래퍼 닉살이다. 닉살은 약 6만3000명의 이웃과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꾸준히 블로그에 기록해왔다. ‘닉살의 틈’이라는 콘셉트로 주변 인물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풀어낸 콘텐츠를 선보이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민선 기자

SOOP 배구대표팀 평가전 온라인 독점 생중계

SOOP(쑤)은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배구국가대표팀 평가전 2026 제천’ 전 경기를 온라인 독점 생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전은 국제대회를 앞둔 대한민국 남녀 배구 국가대표팀의 실전 점검 무대다. 남자 대표팀은 브라질과 22일부터 26일까지 3연전을 치르며, 여자 대표팀은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와 3연전을 펼친다. SOOP은 남녀부 총 6경기를 모두 온라인으로 독점 서비스할 예정이다.

중계에는 한국어 해설을 제공해 국내 배구 팬들이 대표팀의 경기력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SOOP 플랫폼 스트리머들이 참여하는 편파 중계와 다양한 2차 콘텐츠도 함께 선보인다.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응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청 환경을 마련해 배구 팬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OOP은 V-리그와 실업배구, 국가대표 경기, 국제배구연맹(FIVB) 주관 대회 등 다양한 배구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 창단한 여자프로배구단 ‘SOOP 수퍼스’에서는 리베로 한다혜와 아포짓 박은서가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팀에 선발돼 이번 평가전에 출전한다.

SOOP은 앞으로도 국내외 주요 배구 대회 중계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배구 팬들에게 폭넓은 시청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13조 몰린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증시 변동성 키운다

주가 하락에 ETF 수익률 ‘반토막’
닉스 ADR, 본주와 최대 51% 괴리
국내는 자금 풀림에 변동성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3조원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수익률은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다. 미국에서는 주식예탁증서(ADR)가 공모가를 웃돌고 관련 레버리지 상품도 잇따라 출시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대규모 자금을 빨아들이며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한계 탓에 변동성 우려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관련 ETF 16종에 순유입된 금액은 13조4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5종에 8조5456억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5종에 4조7211억원이 몰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버스 2종에도 1466억원이 들어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이미지.

왔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2조8447억원을 순매수했으며, 다음으로는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1조4143억원)’, ‘KODEX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1조2358억원) 등이 차지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33.43%, 26.95%씩 하락한 만큼 관련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는 최근 한 달 동안에만

50.03% 폭락했으며, ‘KODEX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도 50.11% 추락했다.

같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시장의 온도차도 분명하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나스닥 시장에 공모가 대비 12.76% 상승한 168.01달러로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본주와의 격차를 한때 51%까지 벌렸다. 미국은 수백 개 종목에 레버리지 ETF가 분산돼 있는 반면 국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대차증권은 과거 TSMC의 AD

R 사례를 분석해 볼 때, ADR 프리미엄 확대가 본주 매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증권사 김재승 연구원은 “SK하이닉스 ADR 상장은 외국인의 구조적 이탈 요인이기보다 한미 증시 간의 새로운 가격 발견 경로가 만들어지는 기회”라며 “단기 수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적정 프리미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주 매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규모 자금이 집중되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도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소 매수 단위를 20좌로 늘리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선 바 있다.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며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리밸런싱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변동성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증권가에서는 거래대금의 최대 10% 이상이 리밸런싱 물량

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현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리밸런싱 수요가 일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4% 내외”라면서도 “종목의 수익률 변동폭이 커질수록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상회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 증시의 영향력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코스피와 나스닥 100 지수의 60일 상관계수는 0.46으로, 5년 평균(0.16)의 약 3배 수준까지 높아졌다.

뉴욕 투자회사 티그리스파이낸셜파트너스의 아이번 파인세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가 미국 AI와 반도체주의 위협을 가하는 장 시작 전 신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가 속한 동일한 변동성 생태계의 일부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증권사 2분기 호실적에도 주가는 ‘주춤’

5개 증권사 영업익 컨센서스 4.8조
KRX 증권지수 5월 고점 比 34% ↓

사상 최고 실적을 써가고 있는 증권주의 ‘육성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총 4조8438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이 1조9019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금융투자(1조415억원), 삼성증권(6435억원), 키움증권(6375억원), NH투자증권(6194억원)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실적의 배경은 거래대금 증가다. SK증권에 따르면 국내의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118조1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35.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도 2분기 일평균 35조941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일평균 거래대금의 절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브



여의도 증권가 전경.

/메트로신문DB

로커리지 관련 이익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투자자산 평가이익도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증권업종 주가는 실적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증권지수는 이날 2203.44를 기록했다. 지난 5월 기록한 52주 최고치인 3362.84보다 약 34.5% 낮은 수준이다. 증권업종 전반의 이익 전망은 상향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하반기 실적과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가장 엇갈린 평가를 받은 곳은 미래에

셋증권이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을 1조4860억원으로 예상하며 증권본업과 해외법인의 이익 체력이 개선됐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기존 6만9000원에서 5만1000원으로 낮췄다. 스페이스X 투자에서 발생한 대규모 평가이익이 2분기 실적을 끌어올렸지만 하반기에는 반대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김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자사주 소각과 총주주환원율 35% 정책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거래대금 증가가 이어지는 동안 브로커리지와 WM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투자자산 평가이익의 비중과 주주환원 정책, 시장점유율 확대 여부에 따라 종목별 주가 흐름은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융위, 8800억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조성

최대 15년 존속기간 적용

금융위원회가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신약 등 장기 투자에 필요한 기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펀드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내 신규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기존 정책펀드보다 긴 최대 15년의 존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운용사 모집 공고를 내고 연말부터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펀드 규모는 총 8800억원으로 조성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과 재정 800억원 등 공공재원이 전체의 약 77%를 부담하고, 민간자금은 2000억원 이상을 모집한다. 민간 출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실제 투자기간은 7년, 펀드 존속기간은 15년으로 길게 부과해 기술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신약 등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우수 기술기업이다. 금융위는 향후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단순히 재무성과가 아니라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운용사를 우대하고, 미래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에 특화된 전문운용사(KSTP)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투자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래를 바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성장펀드도 그간의 성과를 넘어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운용, 美 기술주 액티브 ETF 출시

시총 상위 기술주 성과 추종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기술주 중심의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미국테크NYSE100액티브’를 오는 21일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ETF는 비교지수인 NYSE100 지수를 바탕으로 미국 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액티브 운용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NYSE100 지수는 정보기술(IT) 비중이 73%에 달하는 대표적인 미국 테크 지수로, 시가총액 상위 기술 및 기술 기반 성장

기업 100개 종목의 성과를 추종한다. 최근 5년 누적 수익률은 127%를 기록하며 나스닥100(108%)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77%)를 모두 상회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술 발전에 대한 높은 노출도가 장기 성과 우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TIGER 미국테크NYSE100액티브’는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뿐 아니라 로봇, 우주·방산, 사이버보안, 자율주행 등 차세대 성장 산업에도 투자한다. 엔트로피와 오픈AI 등 유니콘 기업이 상장할 경우 지수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

“휴대폰 렌탈 악용 불법사금융 주의하세요”

금감원, eSIM 투자사기 등 확산

금융감독원이 휴대폰 렌탈계약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투자사기 등 신종 민생금융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업자등록 후 휴대폰 렌탈계약을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사

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휴대폰 렌탈계약을 담보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과 eSIM 투자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하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금감원에는 동일 업자와 관련한 불법사금융 민원·제보 8건, 유사수신 제보 15건이 접수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휴대폰 렌탈계약을 담보로 활용한 불법사금융이다. 불법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담보로 연 15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 인도나 유심 개통이 없음에도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해 정상 계약처럼 꾸민 뒤, 채무를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겨 추심과 형사고소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태양광·풍력 급증에 ‘그리드코드’ 정비… 전력계통 안정화

전기위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40GW 수준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 계획
IBR 확대 등에 新 기술기준 필요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인버터 기반 전원 확대 등 급변하는 전력 환경에 맞춰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기준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 소속 협의체 행정기구인 전기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화력에서 ‘제1차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리드코드(Grid Code)란 기후부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설비설비 이용규정’ 등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과 규칙들을 의미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고위정책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용량은 현재 약 30~40기가와트(GW) 수준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태양광이 차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서남권 반도체 산단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큰 수요가 예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급증

하는 전력수요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아직 12차 전기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기위원회는 이처럼 변화하는 전력 환

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력계통 및 신뢰도 전문위원회’를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로 개편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국내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운영기준을 집중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그리드코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국민 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망 구조는 기존의 대형 발전소 중심 ‘중앙집중형’에서 태양광·풍력·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이 중심이 되는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다. 인버터 기반 전원(IBR)의 급격한 확대와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자의 등장은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어 새로운 기술기준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향후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는 ▲인버터 기반 전원에 적합한 국내 그

리드코드 현황과 개선방향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의 안전성과 계통 연계 기준 ▲대규모 정전 예방 및 계통 복원체계(Black Start 등) ▲미래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중장기 개선방향 등 4개의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는 송승호 광운대 전기공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한국전기연구원,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력계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통 운영기준 및 기술기준의 지속적이며 선제적인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그리드코드 전문위원회가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반월시화 산단, 中企 AI 제조혁신 기지 전환

산업부, 간담회 열고 추진방안 논의
中企 개별 공정 맞춤형 AI공장 전략 도입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이자 중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집적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중소기업 중심의 대규모 인공지능(AI) 제조혁신 기지로 탈바꿈한다. 소수의 대기업(앵커기업) 중심 수직적 확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이 설비와 공정 데이터를 공동 축적하고 활용하는 ‘수평적 AI 제조전환(M.AX)’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반월시화 소재부품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M.AX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M MINI 얼라이언스는 산업단지 내 AI 전환 확산을 위해 10개 AX 실증 산업단지별로 구성된 협의체다.

반월시화 산단은 기계·전기전자·석유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2만 2000여 개 기업이 입주한 국내 대표 소부장 집적지다. 특히 입주 제조업체의 96.8%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과 인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김민선 반월시화 소재부품 MINI 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비롯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월시화 소재부품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이 부족한 중소기업형 AI 모델을 실증하고 확산하기에 최적의 현장으로 꼽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투자재원과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 기업들이 설비·공정·작업 데이터를 함께 축적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평적 M.AX 확산모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규격화된 지식 대신 현장 숙련공들의 노하우와 감각, 판단력 등 이른바

‘암묵지’가 풍부한 산단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다. 이러한 현장 지식을 데이터로 전환해 AI에 학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품질관리와 공정 최적화 등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완전자동화·무인공장 대신 중소기업의 개별 공정에 맞춘 ‘반월시화형 AI공장(Micro AX Factory)’을 구축하는 실속형 전략도 도입된다. 작지만 완결된 AI 성공모델을 먼저 개발한 뒤, 검증된 모델을 유사 공정과 업종으로 확산해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도 AI 전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반월시화형 AI 제조혁신 실증을 위한 AX허브 구축사업’을 통해 이런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국내 140억원을 포함해 총 280.5억원을 투입, 자동차부품과 PCB 분야에 AX 대표선도공장을 구축하는 한편, 제조 AI 오픈랩과 AX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 입주기업으로의 AI 모델 확산을 전방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요가·필라테스 ‘꼼수환불·먹튀’ 막는다

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센터를 다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센터 측이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액을 깎아내리는 이른바 ‘꼼수 환불’ 관행이 차단된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예고 없는 먹튀 폐업’을 막기 위해 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 선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을 유도한 뒤,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 전 금액(정상가)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해 환불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주는 불공정 관행이 만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 해제·해지 시 환불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위약금 기준 역시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방식이 ‘횟수(회당 가격)’ 기준인지 ‘기간(개월 체류)’ 기준인지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구분하

고, 각각의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명확히 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기습 폐업(먹튀)’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10%는 실제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 25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센터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해, 영업 중단 시 보상 가능 여부를 소비자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I로 해상공급망 위험 선제 진단”

해양진흥공사, 내일 정책포럼서 소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상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경보 시스템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달 22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리는 ‘2026 해상공급망 선진화 및 선제적 대응 정책 포럼’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세계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상 공급망 위험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진공은 ‘AI 기반 해상 공급망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의 추진방향 및 주요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에 나선다.

이 시스템은 선박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해상 통로인 초크 포인트와 국제 정세, 해운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A

I로 분석해 공급망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위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진공은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해상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해운·항만·물류·금융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공급망 전문가 100여 명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포스트호르무즈, 해운·물류 공급망 대응 전략’을 주제로 중동 정세 변화가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한다. 또 L S증권 관계자는 ‘공급망 위기와 금융 시장’을 주제로 공급망 위험이 금융 시장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TR, ‘정통 관료’ 이승렬 신임 원장 선임

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시절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기술개발, 지역균형 발전 등 핵심 국가 산업정책을 이끌어온만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시험인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이승렬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사진)이 23대 원장으로 2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승렬 원장은 1997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30여 년간 산업·통상·에너지정책 등 산업부 핵심 영역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 원장은 산업기술개발과, 산업혁신과, 구조통상과, 자원개발전략과 등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 경험을 쌓았으며 기획재정부담당, 신통상질서정책관, 정책기획관, 원전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쳐 1급 보직인 산업정책실장으로서 국가 산업정책을 총괄했다. KTR 원장 취임 직전까지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신임 원장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증과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KTR의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원장은 로봇, 방산, 바이오, 반도체 등 핵심 미래 유망 산업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해외인증과 국가 간 기술규제 대응 등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KTR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혁신성을 바탕으로 미래산업을 앞서 준비하는, AI 시대 글로벌 기술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햐터그룹
Haetter Group

경북, 구미에 반도체 소부장 혁신거점·국방 실증기반 조성

도내 380개 기업 테스트베드 구축
화합물반도체 R&D로 양산 연계
‘구미형 투자촉진 모델’ 등 마련
KIST와 국방반도체 연구 강화
산학연 상생파운드리 사업 본격화

경북도가 구미시를 중심으로 대경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혁신거점과 국방반도체 실증 기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경권 소부장 거점 육성 및 방산 특화형 시스템반도체 실증 기반 구축 계획에 맞춰, 지역 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구미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실증-양산-팩(Fab)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80여 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양산 검증까지 전 과정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을 목표



경북도와 구미시, KIST가 2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방 반도체 및 관련분야 공동연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로 화합물반도체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SK실트론·LG이노텍·원익QnC 등 지역 앵커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R&D를 확대해 실제 구매 및 양산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과학적인 보조금, 세제 혜택, 부지 제공 등을 포함한 ‘구미형 투자촉진 모델’을 마련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진다. 경북도는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75억 원을 투입해 국방반도체 R&D를 추진하고, KIST 경북본원 설립을 추진해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자재(구미시), 연구기관(KIST·나노융합기술원 등), 대학(서울대·DGIST·금오공대 등), 방산기업(한화시스템·LG·KEC 등)과의 산·학·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공동 기획한다. 지역 기업인 KEC와 협력하는 ‘국방 상생파운드리 구축사업’과 ‘디지털 AI 기반

국방반도체 통합 실증 허브’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방산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부여한 대경권 소부장 혁신거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라며 “기술개발부터 실증, 생산, 기업 투자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충남 닥터헬기, ‘하늘 중환자실’로 출범

중형 기종 교체, 체공시간 4시간20분
환자 2명 동시이송·처치역량 강화

10년간 1,400여 명의 생명을 살린 충남 닥터헬기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중형 헬기로 새롭게 출범했다. 체공시간과 환자 이송 능력이 향상되면서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충남 응급의료 체계 강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와 단국대학교병원은 지난 16일 단국대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장호성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중형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달 1일부터 운항을 시작한 신형 닥터헬기는 동체 길이 14.6m, 최대이륙중량 4,800kg으로 기존(12.96m·3,175kg)보다 커졌으며, 연료 탑재량이 두 배 이

상 늘어 체공시간도 기존 2시간 30분에서 최대 4시간 20분으로 확대됐다.

넓어진 가내 공간 덕분에 비행 중 심폐소생술(CPR)과 각종 응급처치를 더욱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최대 탑승 인원도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 상황에 따라 환자 2명을 동시에 이송할 수 있다. 순항속도는 시속 285km에서 268km로 다소 낮아졌지만, 운항 안정성과 응급처치 여건은 한층 개선됐다.

의료장비는 인공호흡기와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 자동흡부압장치 등 24종 242점을 유지했고, 환자 상태에 따라 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와 인공생아 인큐베이터 등 특수장비도 추가 장착할 수 있다. 충남도는 신형 닥터헬기가 기존 ‘하늘을 나는 응급실’을 넘어 ‘하늘의 중환자실’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양대성 기자 zzica@

부산, ‘명문향토기업’ 33곳 인증

신규 기업 23곳으로 대폭 확대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16일 전제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33곳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명문향토기업 인증 제도는 2006년 시작됐다. 부산에 본사가 있는 기업 가운데 업력 20년 이상,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기여와 고용 유지,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시는 올해 4월 조례 개정으로 기존 ‘향토기업’ 명칭을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으로 바꾸고, 업력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낮췄다. 이번 선정은 개정 조

례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올해 선정 기업은 신규 23곳과 재인증 10곳이다. 신규 기업은 전년 5곳에서 크게 늘었으며 이번 선정으로 누적 인증 기업은 총 87곳이 됐다.

업종도 전통 제조업을 넘어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부품 ▲식품 ▲수산 ▲항공 ▲금융 ▲의료 등으로 다양해졌다. 신규 기업에는 화신볼트산업, 은하수산, 동양제강, 현항공산업, 좋은문화병원, 삼진식품, 파나시아 등이 포함됐다.

선정 기업에는 정책자금 우대 지원, 지방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부산도시가스 요금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경영인증평가원과 국제표준(ISO) 인증 심사·임직원 교육 우대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 글로벌 수소혁신 사업단 개소

포스텍과 2029년까지 공동 운영

포항시가 지역 대학 연구역량과 산업기반을 연계한 수소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16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환경공학동에서 글로벌 수소혁신사업단(H2-BRIGHT) 개소식을 열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수소혁신 사업단은 교육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의 FuelCell NEXUS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포항시와 포스텍이 협력해 운영한다. 사업단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발굴, 지역 수소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맡는다.

윤창원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포스텍 산학협력팀과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며 오는 2029년까지 운영된다. 포항 수소특화단지와의 연계해 지역 수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포항시와 포스텍 관계자들이 16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환경공학동에서 열린 글로벌 수소혁신사업단(H2-BRIGHT)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확대, 포항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 운영 지원, 한국수소기술원 설립 사전 기획, 국가 수소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발굴,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등이 추진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9월 7일까지 정부24 비대면 조사

경남도가 오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시·군이 진행하는 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선거·교육 등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도입돼 참여 방식이 한층 간편해졌다.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GPS 변경 100m 안에 접속해 거주 여부를 응답하면 되며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에서 제외된다.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이·통장이 1차 방문조사를 하고, 거주 여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2차 조사를 진행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막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29일 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위원회는 19일 개회식과 20일 본 회의를 시작으로 각국 대표단이 모여 보고·보존·등재·정책 등 세계유산 관련 주요 의제를 논의한 뒤 28일 폐회식을 연다. 이 기간 위원회 참가자들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근현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등 피란수도 부산유산과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부산유산 필드트립’을 비롯해 반구대 암각화와 불국사 등을 탐방하는 ‘세계유산 필드트립’이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시

스리랑카와 문화관광 교류 확대

경주시는 주한 스리랑카대사를 만나 문화·관광 교류와 세계유산도시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6일 시청에서 M.K. 파프마 나탄 주한 스리랑카대사를 접견하고 내년 한국-스리랑카 수교 50주년을 앞둔 지방정부 교류 확대와 세계유산도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경주시는 스리랑카 캔디시와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OWHC-AP)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불국사와 함께 방역물품과 성금을 지원했으며, 현재는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교류 기반을 넓히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덕군-대구한의대학교

오지마을 찾아가는 한방진료

영덕군과 대구한의대학교가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만드는 의료복지 모델을 실천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영덕군 영해면 사진3리 마을회관에서 ‘2026학년도 K-MEDI 한의나눔사랑방 7월 영덕 의료봉사’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대구한의대와 함께하는 2026년 찾아가는 오지마을 한방진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영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한국마사회 영남지역본부

녹산동 주민위해 3600만원 기탁

한국마사회 영남지역본부가 부산 강서구 녹산동 주민들에게 기부금 3600만원을 전달했다. 마사회 영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녹산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열린 ‘녹산동 한강대회’ 결승전에서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이 같은 금액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마사회 펫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진행하는 ‘녹산동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번 기부금을 받게 됐다. 기부금은 한강대회 운영, 경마공원 인근 마을 취약계층 이웃돕기, 겨울나기 이불 지원 등 3개 사업에 쓰인다. 수혜 대상은 녹산동 주민 약 400명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기사회생’ 홈플러스… 2000억 확보하고 즉시항고장 제출

DIP 대출 협상, 시한 직전 타결
노조, 사측 재정부담 완화 협조
인프라 훼손·재무부담 등 ‘난관’

파산 수순을 밟던 홈플러스가 대주주 및 최대 채권자와 극적인 합의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고 회생절차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홈플러스가 20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심리에 나섰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항고 기간 내 사정 변경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이 제시될 경우 회생 가능성을 재심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번 즉시항고의 핵심 전제였던 DIP 대출 협상은 시한 직전에 타결됐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은 대출 전액인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이사회 승인을 마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회생절차 재개에 나서는 20일 임시휴업 중인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 카트가 정리되어 있다. /뉴시스

쳤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기로 결정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마트산업노동조합과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도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사측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자금 조달과 노사 합의라

는 두 가지 발판을 동시에 마련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수용할 경우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회생 절차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된다. 이 경우 임시 휴업 중인 대형마트 매장들은 협력업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영업 재개 일정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상품 입고와 영업

준비를 고려할 때 8월 중순 이후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매장 운영을 다시 시작하고, 핵심 점포 위주의 구조조정을 거쳐 흑자 전환을 달성한 뒤 잔존 사업 부분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과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즉시항고로 회생의 물꼬는 댔지만, 실제 완전한 영업 정상화와 자립까지는 구조적인 난관이 매우 많다고 본다. 무엇보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쌓인 공익채권 규모가 약 9300억원에 달해, 지원받은 2000억원 상당 부분이 미정산 협력업체 대금 변제에 소모되면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 여력은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 3일 법원의 회생 폐지 결정 이후 1200여 명의 노동자와 700여 곳의 입점업체가 이탈하는 등 영업 인프라가 크게 훼손된 점도 부담이다. 중소 협력사들의 미정산금이 평균 7억 7000만 원대에 달하는 만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정

상 납품을 유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누적되어 온 재무적 부담 역시 회생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MBK는 2015년 인수 이후 10년간 장부가액 기준 약 2조 3235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처분했다.

부동산 매각을 통해 단기 현금 확보했으나 점포 임차료 부담이 급증하면서 2025 회계연도 기준 리스부채 상환 현금 유출액은 4080억원으로 5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고정부담과 대형마트 업황 전반의 부진이 맞물려 있어 분리 매각이나 잔존 사업 M&A 과정에서 적절한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법원이 자금 조달 계획만으로 계속기업 존속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할 경우 홈플러스는 지체 없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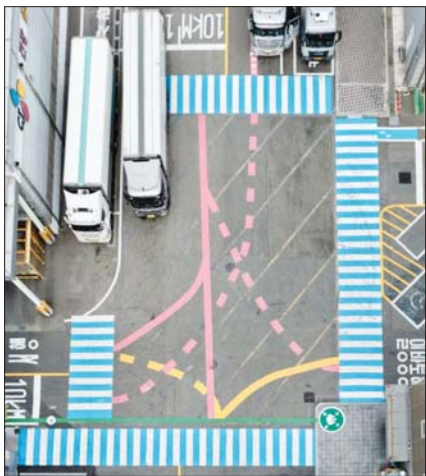
metro

CJ제일제당, 업계 첫 ‘안전 색채 디자인’ 적용

부산공장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작업 동선·위험 구역 직관적 구분

CJ제일제당이 작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공장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CUD)’을 도입했다. 색채를 활용해 작업 동선과 위험 구역을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처음 적용된 사례다.

CJ제일제당은 부산공장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시범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은 색약이나 저시력자를 포함해 누구나 공간과 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과 명도, 채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안전 디자인 기법이다.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모습.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는 중앙고차로와 보행 유도선, 횡단보도, 비상대피로 등 주요 이동 동선에 색채 디자인을 적용했다. 차량과

지게차, 작업자의 이동 구역을 색상으로 명확히 구분해 혼선을 줄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바닥과 벽면의 안전 표지에도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해 현장 식별성을 강화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안전 색채 디자인을 다른 생산시설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공장은 이달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다. AI 기반 위험 감지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모 등 디지털 안전 기술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헛반 제품에 산업안전 슬로건을 적용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U, 국내 단독 코너 맥그리거 흑맥주 선택

글로벌 스포츠 스타까지 협업 넓혀

CU가 세계적인 격투기 스타 코너 맥그리거가 만든 프리미엄 흑맥주 ‘포지드 아일랜드 스타우트(Forged Irish Stout)’를 국내 단독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CU는 최근 유명 아티스트와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셀러브리티와 협업한 주류를 선보이며 차별화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유명인의 이름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셀러브리티의 스토리와 콘텐츠를 제품에 반영해 팬덤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지드래곤 협업 하이볼을 비롯해 예바 차우의 ‘키소맥’, 유튜브 마츠다 부장 협업 맥주, 걸밴드 QWER 컬래버레이션 와인 등을 선보였다. 이번 출시를 통해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글로벌 스포

츠 스타 브랜드까지 협업 범위를 넓혔다.

‘포지드 아일랜드 스타우트’는 코너 맥그리거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선보인 프리미엄 스타우트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생산되는 아일랜드 드라이 스타우트로 초콜릿과 커피를 연상시키는 로스팅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 진한 몰트감이 특징이다. 제품 패키지에는 코너 맥그리거의 서명과 캘틱 문양, 대장장이 이미지 등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를 담았다.

제품은 한정 수량으로 운영되며 주류 예약 구매 서비스 ‘CUBAR’가 입점한 포켓CU, 배달의민족, 데일리에서 오는 8월 11일까지 예약 판매한다. 예약 구매 고객은 9월 3일부터 지정된 CU 점포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9월 초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SG닷컴 오는 26일까지 수퍼워크 여름철 가전·리빙 할인

삼성 에어컨, LG 휘센 제품기 등

SSG닷컴이 오는 26일까지 일주일간 ‘리빙&디지털 수퍼워크’를 열고 여름철 가전과 리빙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절가전을 비롯해 가구, 침구,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리빙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삼성 에어컨, LG 휘센 제품기, 다이슨 V10 윙크 무선청소기, 쿠키 음식물처리기와 밥솥 등이 준비됐다. 르크루제와 AMT 등 주방용품, 리바트·HAY·USM 등 리빙 브랜드 상품도 행사 대상에 포함됐다.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신세계몰 상품에는 10%와 5% 할인 쿠폰을 무제한 발급하며, 신세계백화점몰 상품에는 동일한 할인 쿠폰을 ID당 각각 1매씩 지급한다.

/김서현 기자

GS리테일, AI 스타트업과 AX 실증 착수

5개사와 사업실증 프로젝트

GS리테일이 AI 스타트업과 협업해 산업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는 AI 전환(AX)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GS리테일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더 지에스 챌린지 퓨처 리테일’ 4기 밋업 행사를 열고, 최종 선발한 AI 스타트업 5개사와 사업 실증(PoC)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은 사업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과 실행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기존 기술 중심 협업에서 나아가 현업 수요와 스타트업 기술의 연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GS리테일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전사 17개 사업부의 수요를 조사해 ▲데이터·AI 인텔리전스 ▲자율형 운영 최적화 ▲디지털 고객 경험 혁신 등 3개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 적용 가능성이 높은 AI 스타트업 5개사를 선발했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GS리테일 사업부와 함께 오는 1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주요 과제는 비전 AI를 활용한 신선식품 강화 매장의 고객 행동 및 구매 패턴 분석, AI 검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검색 최적화(GEO), AI 기반 고객관계관리(CRM) 자동화 등이다. SNS 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상품 발굴과 인플루언서·팬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GS리테일은 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참여 스타트업을 5개사로 줄이고, 사업부와 스타트업 간 사전 미팅을 통해 과제 적합성과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등 선발 절차를 강화했다. 일부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컬리, TPO 맞춤 패션 제안 ‘스타일노트’

학부모 참관록 편 ‘인기’

컬리가 시간·장소·상황(TPO)에 맞는 패션을 제안하는 콘텐츠 ‘스타일노트’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선보인 스타일노트는 다양한 상황에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패션 콘텐츠다. 현재까지 일상룩, 운동복, 학부모 참관록, 휴가룩 등 총 4편이 공개됐으며,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쉬운 코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콘텐츠는 학부모 참관록 편이다. 지난달 공개 이후 이달 2일까지 일평균 1만 6000회 이상 조회됐다. 인플루언서 강영주의 스타일링을 담았으며, 소개된 ‘슬로우루리 시앤느 무드 자켓’은 여름철 출근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 활용하기 좋다는 반응을 얻었다.

휴가철을 맞아 공개한 ‘하이와 함께한 여름휴가 룩’ 편에서는 주얼리 브랜드 대표이자 인플루언서인 김마미의 호캉스 스



컬리의 TPO 패션 콘텐츠 ‘스타일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컬리

타일링을 소개했다. 화이트 톤의 모녀 시밀러룩을 중심으로 연출했으며, ‘무시드 르반 시스루 스트라이프 셔츠’와 ‘베이비 블리 하트엠보 나시’를 활용한 코디를 선보였다.

컬리는 패션 콘텐츠도 확대하고 있다. ‘스타일노트’와 함께 시즌별 패션 키워드와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트렌드픽’, 패션 전문가가 브랜드를 소개하는 ‘브랜드파인더’ 등을 운영하며 패션 큐레이션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술 한잔도 취향에 맞게”… 주류업계, 경험 마케팅 확대

공간·스토리텔링·체험 등 중심
문화·예술 접목, 프리미엄 브랜딩
이종 산업 협업, 브랜드 충성도 ↑

국내 주류 시장의 경쟁 축이 제품 자체의 스펙(맛·도수·가격)에서 브랜드가 제공하는 독점적 가치와 경험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술을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구조적 패러다임 시프트로 분석된다.

◆시장 정체 타개할 생존 방정식

과거 국내 주류 마케팅이 대중적인 연예인을 앞세운 TV 광고나 도매 채널 영업에 의존했다면, 최근에는 소비자가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스토리텔링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됐다.

이같은 변화의 이면에는 주류 시장의 양적 정체와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양극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고물가 기조 속에서 일상적인 음주 지출은 줄이면서도, 한 잔을 마실 때 확실한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 경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회식 중심의 폭음 문화가 쇠퇴하고 흡술·훈술이 일상화되면서, 주류 소비는 취하기 위한 수단에서 취향을 향유하는 취미로 재정의



국순당이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구테로이테와 협업해 막걸리의 풍미를 빙수나 라떼 등 여름 한정 디저트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국순당

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기 매출 진작보다 브랜드의 수명을 늘리는 고관여 충성 고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타 산업과의 협업은 브랜드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가격 저항감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미술관으로 간 주류

가장 두드러지는 흐름은 문화·예술계와의 결합이다. 고가 제품군이 포진한 와인, 위스키,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들은 아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의 헤리티지(유산)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근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에비스(YEBISU)’는 갤러리현대의 기획 전시 오프

닝 파티와 협업해 지식인·자산가 층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쳤고, 와인 수입사 예노테카코리아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설치미술가 박선기 작가와 한정판 아트레이블 에디션을 선보였다.

단순히 제품을 협찬하는 수준을 넘어, 예술이 가진 고유의 분위기를 제품 이미지에 이식하는 고도의 브랜딩 기법이다. 시장 분석가들은 최근 소비 트렌드인 디토(Ditto)나와 취향이 유사한 인물이나 브랜드의 선택을 추종하는 경향) 소비와 연결 짓는다.

◆파인다이닝부터 MZ 디저트까지

식음료 산업과의 협업은 주류의 음용 지평을 넓히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실리



맥주 브랜드 ‘에비스(YEBISU)’가 갤러리현대의 기획 전시 오프닝 파티와 협업했다. /에비스

적 목적을 지닌다.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더 글렌그란트(The Glen Grant)’가 유명 파인다이닝 셰프들과 전개한 미식 페어링 캠페인은 위스키가 독주라는 정형화된 인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미식 문화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도록 유도한 사례다.

전통주 업계는 미래 핵심 소비층인 2030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대중적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국순당이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구테로이테와 협업해 막걸리의 풍미를 빙수나 라떼 등 여름 한정 디저트로 재해석한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

전통주라는 중장년층 중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SNS를 통한 인증 문화와 이색 경험에 민감한 젊은 층에게 놀이문화로서 다가간 것이다.

◆이종 결합의 경제학

전문가들은 주류업계의 이러한 외연 확장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구조적 생존 전략으로 고착될 것으로 전망한다.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이종 산업 간의 협업은 강력한 윈-윈(Win-Win) 효과를 유발한다. 주류 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자체 팝업스토어나 공간 구축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존 협업 파트너가 보유한 인프라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예술계나 F&B 업계는 주류 브랜드의 자본력과 대중적 마케팅 자산을 활용해 자사의 핵심 타깃층을 넘어선 새로운 성인 소비층을 유입시키는 상생 구조를 완성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타 산업과의 경계를 허물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밀도 높은 정서적 경험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느냐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쥐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올리브영, 프리미엄 뷰티 선택권 넓힌다

31일까지 ‘럭스에잇’ 3주년 행사 진행
2023년 설치한 프리미엄 뷰티 전문관

CJ올리브영이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행사를 선보인다. 올리브영은 오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럭스에잇’ 3주년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럭스에잇은 올리브영인 2023년 설치한 프리미엄 뷰티 전문관이다.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우선 서울 주요 매장인 센트럴 명동 타운점, 홍대 타운점, 센트럴 강남 타운점 등에서 ‘럭스에잇’ 대표 브랜드를 주제로 한 팝업 공간을 꾸민다. 각 매장에서 메이크업 브랜드 ‘헤라’, 헤어 브랜드 ‘케라스타즈’ 등 서로 다른 브랜드를 선보인다.

또 기초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등 부문별 기획도 준비했다. 한정판 제품과 특별 혜택을 내놓는 가운데, 기초 부문에



럭스에잇 3주년 프로모션 이미지.

서는 랑콤, 키엘 등이, 메이크업 부문에서는 에스티로더, 헤어 부문에서는 로레알 프로페셔널 등 글로벌 브랜드도 대거 참여한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자사 공식 쇼핑

방송 ‘올영라이브’를 통해 오는 23일에는 크리니크를, 24일에는 케라스타즈를 소개하며 브랜드 대표 제품, 사용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리브영은 향후에도 프리미엄 뷰티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릉 타운점, 전주 타운점 등 비수도권 매장에서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 최근에는 서울 성수에 새롭게 문을 연 뷰티 맨션 성수 매장에 베이스 및 입술 제품을 설치해 고급 쇼핑 공간을 확보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많은 고객이 일상에서도 프리미엄 뷰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럭스에잇 브랜드 라인업과 샵룸 큐레이션을 지속 늘려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획 상품과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프리미엄 뷰티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HLB라이프케어, 인바디와 혈당관리 공략

피코링과 인바디헬스케어 기기 결합

HLB글로벌자회사HLB라이프케어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HBL라이프케어는 인바디헬스케어와 연속혈당측정기 ‘피코링’ 판매를 위한 협업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둔다. 인바디헬스케어 공식 홈페이지 내 제품 메뉴에서 혈당계 부문을 신설하고 피코링과 인바디헬스케어 기기를 결합해 선보인다.

피코링은 초소형 스마트 연속혈당측정기다. 한 번 부착하면 최대 15일간 채혈 없이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사, 운동, 수면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혈당 변화를 측정해 준다. 인바디헬스케어는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 등

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혈당 데이터에 체중, 체지방률, 골격근량 등 주요 건강 지표를 더해 일상 속 건강관리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피코링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인바디측정을 통해 혈당 관리 활동이 체지방 감소, 근육량 유지 등 체성분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다룬다.

김송수 HLB라이프케어 대표는 “피코링은 단순히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를 넘어, 이용자가 자신의 생활습관과 건강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라며 “인바디헬스케어와의 협업을 통해 체성분, 운동, 식단, 혈당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건강관리 경험을 제공하고, 향후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용마로지스, 물류 현장교육 통한 인재 육성

경기물류고 학생 대상 센터 견학

용마로지스가 물류 전문 기업의 경쟁력을 공유하며 산업 인재 육성에 나섰다. 용마로지스는 지난 16일 경기물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마로지스쿨’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용마로지스쿨은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직무를 이해하고 실제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엔 참가한 학생들은 용마로지스 안전 TPL센터 및 허브센터를 견학했다. 소터기 등 자동화 물류 설비를 작동하는 등 핵심 물류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했

다.

용마로지스 현장 임직원들의 직무특강과 멘토링도 이어졌다. 물류 산업에 대한 최신 견해와 직무 노하우를 설명하며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함께 고민했다.

용마로지스는 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설계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물류고등학교, 평택시 서부청소년센터 등과 협력해 왔다.

용마로지스 관계자는 “지역 사회와 학교, 기업이 뜻을 모아 미래 세대 성장을 돕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GC메디아이, 독감백신 사전주문 시작

미소물닷컴서 3개 품목 예약 가능

GC메디아이가 오는 9월 하순부터 시작하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GC메디아이는 병·의원 의료용품·의약품 온라인쇼핑몰 미소물닷컴에서 ‘독감백신’ 사전주문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사노피아벤티스 ‘박씨그리프’, 일약약품 ‘일약플루’, 한국백신 ‘코박스플루’ 등 3개 품목을 예약할 수 있다. 8월 중 최대 6개까지 품목을 확대할 예정

이다.

미소물닷컴은 병·의원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전주문 수량에 대해 ‘100% 반품 가능’ 정책을 적용한다. 신속한 정산을 위해 11월 중 일정 기간 일괄 반품 접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진태 GC메디아이 대표는 “현장 병·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재고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병·의원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약품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의료재단

안전보건 경영 인증

GC녹십자의료재단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경영 체계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국내 임상검사 전문의료기관 최초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ISO 45001’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했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분야 관리 체계와 운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청하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포스코청암재단, 해외유학장학 증서수여식 개최

포스코청암재단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6 포스코 해외유학장학 증서수여식'을 열고 해외 대학 박사과정 장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왼쪽 세번째부터)노이준 장학생, 서동웅 장학생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포스코홀딩스



웅진프리드라이프,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수상

웅진프리드라이프가 국가보훈 문화혁신과 호국영령 예우 활동에 기여한 공로와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 (왼쪽)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웅진프리드라이프



KB국민은행-강북삼성병원, 시니어 건강증진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 강북삼성병원과 '시니어 건강 증진 및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윤석 KB국민은행 WM추진본부 상무(왼쪽 두번째), 전원상 강북삼성병원 행정부원장 (왼쪽 세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안전교육체계 성과 입증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가 최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안전체험교육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안전체험교육센터의 구축 과정과 운영 성과, 자사 및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안전교육체계를 소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려아연



롯데GRS, 국립중앙박물관 '한식미관' 개장

롯데GRS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푸드코트 '한식미관'을 개장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서관 전시동 1층에 들어선 '한식미관'은 약 276평 규모에 310석을 갖췄다. 문화시설 내 식음(F&B) 사업을 확대하며 컨세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롯데GRS

현대차, 中 베이징서 '블루 프라이즈+ 2025' 첫 전시

문화 기반 글로벌 마케팅 전개
작가·예술가 집단 8개 팀 참여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기술 등의 공유를 위한 문화 마케팅을 진행한다. 그 시작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예술 중심지 베이징이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중국 현대 모터 스튜디오 베이징에서 '현대 블루 프라이즈+ 2025'의 첫 번째 전시인 '프레이어스 투 포낙스: 과학, 기술 그리고 영성'을 개막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 블루 프라이즈+'는 국내외 큐레이터의 전시 기획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 프로그램이다.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주요 담론을 조명하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2017년부터 중국의 '현대 블루 프라이즈 아트+테크'와 한국의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을 운영하



현대 블루 프라이즈+ 2025 'Prayers to Fornax: Science, Technology, and Spirituality' 전시 전경.

며 총 14개 큐레이터팀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 두 프로그램을 '현대 블루 프라이즈+'로 통합하고 참여 지역과 분야를 확대했다.

통합 이후 처음 진행된 지난해 공모에는 전 세계 160여개 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이번 전시를 기획한 웨이이 평수 샤오단팀과 내년 1월 전시를 선보

일 박혜진·박윤영팀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웨이이평과 쉬 샤오단이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준 발타자르·피에르 포즈, 자크 블라스,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하룬 미르자, 리아르 리잘디, 나타샤 토티에, 수잔 트라이스터, 천 저 등 작가와 예술가 집단 8개 팀이 참여했다.

전시는 과학과 기술, 영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과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과 자연에 남은 역사와 기억, 사머니즘과 신비주의 등을 주요 소재로 다룬다. 전시 제목에 사용된 '포낙스(Fornax)'는 라틴어로 실험실 난로나 용광로를 뜻하는 남반구의 별자리다.

한편 현대차는 현대 블루 프라이즈+ 외에도 글로벌 미술관 및 문화기관과 장기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영국 '테이트'와의 협력은 203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과의 파트너십은 2037년까지 연장했으며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도 2034년까지 지원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기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송미령 장관, 농촌특화지구 현장 점검

합천군 쌍백면 방문... 주민 의견 청취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에 각각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재생하기 위해 시·군이 지정하는 지구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국내 최초의 농촌특화지구인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했다. 그는 주민들과 만나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매년 방문객 4000여 명이 인구 약 200명의 쌍백면 평구리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같은 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경남 합천 '농촌특화지구' 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롯데칠성음료, '아이스스' 레드닷 본상

'친환경 패키지' 경쟁력 인정 받아

롯데칠성음료는 생수 브랜드 '아이스스'의 초경량 용기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자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과 재활용 편의성 향상 등 지속가능성을 제품 설계에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스스 초경량 용기는 500mL 페트병 무게를 기존 11.6g에서 9.4g으로 약 19% 줄이면서도 구조 설계를 개선해 내구성을 유지했다. 사용 후 쉽게 압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재활용 효율을 높였고, 라벨 없이도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용기 형태를 적용해 불필요한 자원 사용도 최소화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국적·통합정책담당장 한재용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우정 △중부지방국세청 정세송국장 강동훈

부음 ▲조연수씨 별세, 이선택·이선옥·이선영·이선숙·이선미(영동농협

경영본부장)·이계숙씨 모친상, 김갑용(충청매일 부국장)씨 장모상 = 20일 오전 2시 30분, 영동병원 장례식장 특실 5빈소. 발인 22일. 0507-1472-4499

▲황준구씨 별세, 김미덕씨 배우자상, 황병춘·황병훈(춘천MBC 보도제작국장)씨 부친상 = 20일, 강원 춘천 호반병원장례식장 특실5호, 발인 22일. 033-252-0046



한국거래소는 20일 부산 본사에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 금융교육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뉴스1

거래소, 특성화고 학생 금융교육 지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후원금 전달

한국거래소가 사회 진출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 지원에 나섰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부산 본사에서 사회 진출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후원금 7000만원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상호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박기효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대구제일여자상업 고등학교 학생 22명이 참석했다.

거래소는 2012년부터 금융교육 기회

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지역 특성화고 및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인 'KRX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KRX 방문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이고도 의미 있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금융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마사회, IP시대 말산업 비전 제시

AFPRO 참가... 말 산업 기업 지원

한국마사회가 지난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6)에 참가해 '말산업 기반의 테크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의 후원기관인 마사회는 말산업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지원했다.

이올러 올레 초 국내에 들어온 '닉스고'(세계 챔피언 경주마) 기반의 콘텐

츠를 비롯해, 경마 시행을 넘어 IP(지적 재산권) 시대를 맞이한 말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마사회와 손잡고 말산업 관련 테크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창업기업은 월리테라피, 림피드, 브로즈, 아티젠스페이스 등 4개사다. 이들 기업은 협장에서 말 매개 치유농업, 동물 모니터링 및 행동분석, 말산업 시설 및 공간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시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 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이 여름, 나무의 말이 들리시나요?



서선미의
기후에세이

흔한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두고, 사람들이 모여 분노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낯설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은 ‘부암동 은행나무 살리기 60인’의 이름으로 환기재단 이사장과 환기미술관 관장을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부암동 환기미술관 담장 옆, 수령 200년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누렇게 말라 죽어간 것이 시작이었다. 사태의 발단은 미술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조경업자들이 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곤충도 제조제를 주입한 것으로, 낙엽 처리와 열매 악취 민원, 담장 붕괴 우려가 이유였다고 한다. 미술관은 의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민과 미술관 측 공방으로 시끄러워지는 사이 은행나무는 여전히 누런 잎을 떨구어 뱉다. 가을에 떨어질 은행잎들이었다. 미술관은 ‘서촌’이 관광지로 뜨기 전에도 꽤 유명한 공간이었다. 한국미술의 거장 고(故) 김환기 화백을 가리는 이른바 ‘김환기 화백의 집’과도 같은 곳이었다. 김환기 화백의 호는 ‘나무와 이야기한다’는 뜻의 ‘수화(樹話)’다. 좋은 예술

가는 세상 모든 사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스스로 나이를 몸에 품는 나무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아니 알아듣기 위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이를 예술가라 부른다. 나무와 이야기한다던 예술가는 사라지고, 김환기 화백의 이름만 남은 것일까. 다른 어디도 아닌, 화가의 ‘그곳’에서 벌어진 일

이기에, 사람들은 탄식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일상에서 수시로 마주하는 ‘자연 파괴’라는 흐름에 놓여 있다. 지구는 매년 여름 역대 최고 기온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 등 유럽 대도시의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호주의 국립대인 RMIT 대학교 산하의 연구소에 따르면 도시 열섬 현상을 억제하려면 건물 주변 반경 60m 이내에 최소 30% 이상의 나무그늘을 확보해야 한다. 대도시의 오래된 나무는 최후의 ‘기후 방패’ 역할을 한다. 거대한 노거수 한 그루는 10평형 에어컨 10대를 하루 스무 시간 동안 동시에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 냉방 효과를 낸다. 스마트폰을 약 2만 5000회 완충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과 상쇄되기도 한다.

긴 세월 인간과 함께 해 온 나무는 인류 생존을 위한 모두의 공유재이다. 김선우 시인은 시 ‘오동나무의 웃음소리’를 읽는다. ‘문 밖까지 땅 끝까지 강물소리 자본자본 번져가 고 푸른 잎새 축축 휘날어지도록 열매 주렁주

렁 매단 오동나무가 흐뭇하게 따님들을 굽어 보시는 것이었다’는 시인의 식구는 동네 나무 한 그루가 모든 딸들과 딸들의 어머니와 그들이 낳을 다른 딸들의 ‘식구’임을 보여준다. 환기미술관에 기후 문해력을 애써 묻지 않는다. 채 한 뼘도 되지 않는 담을 두고 긴 시간 같이 한 ‘나무’를 미워하는 일에만 눈 먼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사과는 답이 아니다. 편리를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존재쯤 제거해도 된다는 것이 인류의 본성이라면 모든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전반에 ‘기후·생태적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는 공공의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또 시설 관리가 주변 생태계와 기후 변화, 시민들의 삶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세워 제 이익만 쫓는 그들 앞에 제시해야 하는 것일까.

민낯의 인간은 기후위기를 만들고, 치명적 기후위기는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오래된 은행나무가 무수히 떨구어 낸 마른 잎사귀들은 인류의 생존을 묻고 또 묻는 ‘목소리’로 들린다. 사람들은 나무의 말에 귀를 막고, 그 아픈 소리를 꼭꼭 씹으며, 2026년 여름을 지나고 있다. 데면데면한 지나침이 아닌 오동나무 그늘 아래 서서 나무의 흐뭇한 표정을 읽을 줄 아는 ‘그 시인’의 시선으로 오래, 깊게 들여다보고,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수석정책전문위원

메가프로젝트 성패는 ‘인프라 확보’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대기업들의 지역 투자 확대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정부와 기업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영남권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센터, 충청권 HBM 생산공정과 미래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마더 팩토리 등의 구체적인 발표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첫 팹(공장) 가동 목표를 2030년으로 잡고 부지를 선정하고 전력과 용수 등의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기업들의 비수도권 투자도 확대되는 조짐이

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하반기 투자계획’에서 응답 기업(106대사)의 27.4%가 3년 내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 4곳 중 1곳은 향후 3년 내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가 실제 안정적으로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인재를 확보하는 건 다른 문제다. 수도권에 거주중인 젊은 인재를 광주로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 가족들까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건 쉽지 않다.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전남 나주도 젊은 인재들이 취업

이후 몇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다. 또 젊은 인재들의 ‘꿈의 직장’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서울 강남에서 경북 경주시로 이전하면서 인재 이탈을 겪었다.

과거 ‘좋은 회사·좋은 직장’에 집착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다양한 문화와 교육, 복지 혜택을 갖춘 곳에서 마음에 맞는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특히 가정이 있는 신혼부부들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울 밖의 넓은 집을 내놓고 대치동 전세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다.

당장 4년 내 반도체 공장 가동 목표를 쫓기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 임직원들이 지방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문화·교육 등 정주 여건을 먼저 확보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ysw@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1일 (음 6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60년생 일마다 여의하니 천금을 얻을 것입니다. 72년생 지나친 자만심은 독입니다 84년생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49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61년생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73년생 주변의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85년생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자신도 있겠으나 참으세요.



50년생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합니다. 62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6년생 연수를 가게 되어 이상형의 이성을 만납니다.



51년생 선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63년생 화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암시가 있습니다. 75년생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87년생 지나친 음주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52년생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64년생 지금까지 귀하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새겨 보세요. 76년생 꾸준히 노력하세요. 88년생 현재의 막힌 상태를 한탄하지 마세요.



53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65년생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77년생 세상과는 거리가 먼 신선의 모습이라. 89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54년생 우연히 남의 재물이 내 손안에 등 재물이 쌓입니다. 66년생 소원을 풀 수 있습니다. 78년생 귀하를 도울 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90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55년생 큰 일을 꿈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67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79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방합니다. 91년생 시기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6년생 금전운과 이성운 모두 좋은 시기입니다. 68년생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하세요. 80년생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92년생 평화로운 중에 항상 함정이 있는 법입니다.



57년생 시기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69년생 늘 배우는 자세로 사람들의 대하세요. 81년생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세요. 93년생 때로는 고집을 조금 꺾는 것이 좋습니다.



58년생 지나친 욕심은 금물입니다. 70년생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길합니다. 82년생 직장운과 명예운이 아주 길합니다. 94년생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59년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71년생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가세요. 83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95년생 계획을 확실하게 하고 움직이는 것이 길합니다.



김상회의四季 민법은 상식의 법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법은 민법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민법과 연결되어 있다. 출생 신고를 하고 이름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계약을 맺고, 물건을 사고팔고, 돈을 빌리고, 결혼을 하고, 재산을 남기는 과정까지 모두 민법의 영향을 받는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사회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다. 법이라고 하면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행하는 사회 활동과 경제활동 대부분은 민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 관계를 다룬다. 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거나,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거나,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도 민법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정리해 주는 규칙이다. 민법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힘들어진다. 물건을 살 때 돈만 건네고 물건을 못 받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민법은 상식을 관장하는 법이기도 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상식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이다. 서로 믿고 거래하게 해주는 기반인 민법이 있어서 믿음의 사회가 가능하다. 민법의 물권 편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다룬다.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집이나 자동차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물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편은 약속과 거래 관계를 다룬다.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손해배상 규약 같은 내용이 채권편에 담겨있다. 가족관계 친족 편에서 혼인, 이혼, 친권, 양육처럼 가족을 이루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까지, 민법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알게 모르게 지탱해주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6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2	3	6	8	4
				1			
	7			8		9	
1		8			6		7
4			1				9
		6		9			1
			3				
2	1	9	5		7		

문제풀이:

			5	1			
	2					4	
	6		4	2			1
2	9		8				
8	3					7	4
					3	8	5
3			1	7		6	
		1					4
			3		2		

문제풀이:

8	9	8	2	7	9	6	1	2
2	6	2	9	1	8	9	7	8
9	1	7	2	6	8	9	8	2
9	2	9	8	8	1	2	6	7
6	8	2	9	9	7	8	2	1
8	7	1	6	2	2	8	9	9
1	9	6	7	8	9	2	2	8
2	2	8	1	9	6	7	8	9
7	8	9	8	2	2	1	9	6

문제풀이:

2	6	1	2	7	8	8	9	9
2	7	8	8	9	9	1	2	6
8	9	9	2	1	6	2	7	8
9	8	6	8	9	2	7	1	2
7	2	9	6	1	9	8	8	
8	1	9	7	2	8	9	6	2
1	8	8	6	2	7	2	9	9
6	9	7	9	8	2	8	2	1
9	2	2	1	8	9	6	8	7



홈플러스, 재기 시동
2000억 자금 확보
희생절차 준비 속도
N1

metro®

Life

“술 한잔도 취향 따라”
주류업계, 체험 강화
소비자 접점 넓힌다

L2



17조 포용금융… 서민 재기,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국민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사각지대 없는 포용금융 자원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이 가운데 10조5000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며 “KB는 손길이 닿지 않는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동반자’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혀드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취약계층 1만2433명 채무감면

KB국민은행은 올해 금융 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채무감면은 중단기연체 채권의 원금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연체 정리를 넘어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도울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해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차주의 부담을 덜어줬다.

'KB희망금융센터'는 취약계층 고객에게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대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한주 KB국민은행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 1.24만명 2785억 감면
원금 최대 90%·2074명 채무 소각

새희망홀씨 금리인하·초과이자 지원
성실상환 고객 최대 2%p 추가 인하

전국 16곳서 소상공인 무료 컨설팅
멘토링 100개사 확대·경쟁력 강화



구, 대전, 부산에 새롭게 문을 열어 전국 주요 거점지역으로 확대했다.

KB희망금융센터는 은행권 대표 포용금융 실천 모델이다. 은행 자체 채무조정과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KB금융그룹이 자체 개발한 KB 젠(Gen)AI 기반의 여신 사후관리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직원들의 상담 역량을 높였다.

KB금융은 앞으로도 연체채권 시효의 단순

연장보다는 적시 채무탕감·조정을 통해 차주들이 정상적인 소비·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비용 낮춘다… 취약계층 금리인하

KB국민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II 금융비용 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대표 상품인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종 등에 대한 최고금리를 기존 13.0%에서 9.5%로 3.5%포인트(p) 인하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약 3600억원, 약 5만 1000여명이 금리 부담을 경감받는다.

또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p 인하한데 이어 6월 26일부터 대출금리 7%를 초과하는 이자 부담분을 지원해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채무 경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KB국민은행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II로 전환한 고객 가운데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고객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종'을 통해 연간 약 4000여 명의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인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상품은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근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KB 새희망홀씨II'를 성실히 상환 중인 고객은 대출 기간 중 최대 2.0%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개월마다 대출 연체 없이 상환하면 금리가 0.2%p씩 자동 감면된다.

◆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경쟁력 강화

KB금융은 'KB소상공인 응원프로젝트'를 통해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은 물론 컨설팅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2016년 9월부터 은행권 최초로 전국 단위의 'KB소상공인 컨설팅센터' 16곳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6만 4000여건의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 경영 및 금융지원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업을 은행 지점 내 공간을 활용한 '소상공인 원스톱 컨설팅센터'도 설립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양종희 회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올해 KB금융은 다양한 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가며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겠다”며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찾아가는 KB소상공인 멘토링스쿨'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 진단·경영·세무·SNS컨설팅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며 활동 종료 후에도 전국 소재 'KB소상공인 컨설팅센터'와 자영업자를 매칭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올해 2월 말 기준 멘토링스쿨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343건에 달한다. 올해는 9기를 맞아 기존 50개사에서 100개사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기존 하반기에만 운영하던 방식에서 연간 상시 프로그램으로 바꿨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사옥 전경.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세에서 열린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에 마련된 KB금융공익재단 경제·금융교육 체험부스에서 아이들이 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KB희망금융센터가 서울과 인천에 이어 대구, 대전, 부산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KB금융그룹

메트로 한줄뉴스



▲메시 올린 스페인 '질식 수비'… 역대 최소 실점으로 우승

▲'3연패' 한화, 악재까지 만났다… 강백호,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

/사진 뉴스스

▲'골든볼' 주인공은 스페인 로드리… 득점왕은 음바페

▲'아시안게임 4연속 금메달' 노리는 이민성호, 23일 조 추첨

▲이정후, 2경기 만에 안타 생산 재개… 시즌 타율 0.303

▲'에르난데스와 결별' 한화,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영입